

불교병원 개원준비 설명회 열려

발전기금·병원 후원회 조직 등으로 재원마련 계획

불교병원 개원준비에 대한 설명회가 학생대표자를 대상으로 지난 18일 일산병원에서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개원지연과 수익성여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개원준비현황, 재원조달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개원준비현황=개원이 지연됨에 따라 대외이미지 실추 △관리비용 연간 30여억원 소요 △시설노후화 △세무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교는 의료원 직원과 외부인사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불교병원개원추진단(단장=홍기삼·국어국문학, 이하 개원추진단)을 발족하고 △개원준비현황분석과 세부 일정 수립 △특성화·차별화 등 경영전략 수립 △예산투자 및 운영계획 수립 등에 관한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외부 컨설팅업체와의 협의하에 추진하며 오는 12월 마무리된다.

개원에 대해 개원추진단은 인력구성과 물자구매 등 세부업무와 시범진료를 거친 후 이르면 다음해 9월경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원조달방법=현재 지출되고 있는 비용과 앞으로 소요될 재원에 대해 현재 적립된 의료원 수익금과 발전기금을 사용하고 △재단전입금 확보 △장비 리스 △부대시설(식당·매점 등) 임대 △발전기금 모금 △불교계 중심으로 병원후원회를 조직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개원추진단 김지영 기획팀장은 "재원조달계획은 계획

일 뿐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컨설팅이 끝난 후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비사용에 대해 "개원준비과정에서 교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 총장의 방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수익전망=그동안 논란이 됐던 수익성여부에 대해서는 "양·한방 협진 등을 통한 특성화·차별화로 의료수입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병원주위와 고양시 일대에 광범위한 택시·도로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20~30만명의 의료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개원초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는 "개원즈음에는 5만여명이

병원주위에 입주할 예정이며, 불가유치에 힘쓰고 신설병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10만여 의료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500병상을 부분개원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명회와 관련해 오선일(국교4) 학원자주화투쟁위원장은 "재원조달방법이 불명확했으나 학교측이 개원계획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었다"고 말했다.

개원추진단측은 "컨설팅 이후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학내구성원에게 알리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병원개원에 대한 논의는 컨설팅 이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부 dnmz@dongguk.edu

동국해외탐방 프로그램 진단

사전준비·평가기준 강화해야

전공심화·다양한 경험제공 등 긍정적 효과

'2003 동국해외탐방장학자(이하 해외탐방)'이 지난 6일 결과보고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진행된 해외탐방은 동일전공 학생 3명씩 한 팀을 이뤄 전공과 연계한 탐방주제를 정하고 방학기간 중 2주 동안 해외 대학과 연구소, 기업 등을 탐방하도록 학교측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엘지 글로벌 헬원저' 등 다른 해외탐방프로그램이나 해외연수가 경문을 넓히거나 어학실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 것과 달리 전공과 연계한 탐방주제를 선정해 전공의 심화습득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교환학생과정을 비롯한 해외교육·연수기회가 부족한 본교 현실에서 해외탐방은 학생들의 경문을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탐방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선발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는 의견이다. 현재 최종합격자가 6월 초 발표돼 기말고사기간과 준비기간이 중복됨에 따라 탐방 장소와 숙박·교통시설 등 세부적인 준비에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당초 계획보다 불필요한 시간 낭비돼 심도있는 연구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탐방 후 결과 보고에 대한 평가방법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현재 평가방법은 △학생들간의 상호평가=90% △학교측 평가=10%이고 △결과보고=80% △인터넷중계=20%가 반영되며 우수팀을 2팀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서로 평가하는 상호평가는 전문 심사위원의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지고 학생들이 서로 평가해 공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해외탐방 참가자 김수영(지교3) 양은 "다른 팀의

인터넷중계와 보고서를 검토하지 않은 채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도 상당수를 차지해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질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대다수 지역에서 인터넷 사용이 쉽지 않아 계획대로 인터넷중계를 진행한 팀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평가의 20%를 반영하는 것은 형식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본교 해외탐방은 전공분야를 현장에서 학습하고 경문을 넓히는 취지에서 마련돼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학생복지실의 한 관계자는 "현재 20여팀에서 앞으로 학과별 1팀씩 60여팀으로 대상자를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학교측의 홍보·지원강화와 함께 다양한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본교 한총련대의원 4명 수배해제

지난 3일 경찰서 출두 ... 총학생회장 제외

한총련 대의원이란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은 본교 재학생 4명이 수배해제됐다.

이는 지난 7월 검찰이 발표한 불구속수사 대상자 79명에 포함된 3명과 포함되지 않은 1명이 지난 3일 중부경찰서에 출두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수배가 해제된 학생은 서영

건(사회4, 수배 2년차) 주진원(국교4, 수배 3년차) 오선일(국교4, 수배 2년차) 이상현(아간강좌 경영4, 수배 2년차)이다.

그러나 유영빈(경영4, 수배 2년차) 총학생회장은 한총련 11기 중앙위원이란 이유로 출두하지 않아 수배해제 되지 못했다.



작은 손길 모아 ... 총학생회(회장=유영빈·경영4)가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돕기 위한 모금활동을 학생회관 로비와 중앙도서관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는 학교로부터 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한 수해피해 학생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yeam@dongguk.edu

2학기 수시모집 10.52:1

연극영상학과 71.08:1로 최고 경쟁률 기록

2004학년도 2학기 수시 모집 접수 결과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평균 10.52: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번 수시 모집에서는 총 873명을 선발하며 △일반 우수자 전형 △불교계 추천 △과외·외국 우수자 △체육기능 우수자 △장기취업자 △실업계 특별전형 등 지난해보다 다양한 전형으로 모집했다.

이중 연극영상학과는 71.08: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 우수자 전형 논술고사는 오는 28일 진행되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논술고사를 실시하지 않는 외국어 우수자 전형의 경우 다음달 21일,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11월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종관위, 동국학원 이사후보 확정

총회 동의 얻은 후 이사회 추천 예정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원택, 이하 종관위)가 지난 13일 동국학원 이사 후보를 복수 추천해 오는 23일 열리는 제160회 임시중앙총회에서 후보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는 동국학원 이사 8명의 임기가 오는 11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이사선임은 오는 10월 중순 열릴 예정인 동국학원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동국학원 정관은 총 13명의 이사 중 스님이사 9인에 대해서는 종관위에서 복수추천 해 총회의 동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확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총동창회(회장=류주형)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종관위가 스님이사 외의 재가 이사 3명까지 추천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총장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는 관행을 무시하고 총장 이사 후보를 추천한 것은 재단과 학교와의 원활한 업무 협조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송재만 총동창회 사무처장은 "중앙총회의 결과를 지켜본 후 오는 25일 회의를 개최해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동국학원 정관 24조는 '조계종 재적승려 이사 및 감사는 조계종단의 2배수 이상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직원인사 발령

본교가 지난 1일 대대적인 직원인사를 단행했다.

△건축학100주년기념사업회 사업본부장=선상규 △기획사업팀=박정순 △사회과학대학 교학과=주현석 △법과대학 교학과=고제선 △경영대학 교학과=유원림 △예술대학 교학과=김중기 △학생선발실=김홍모 △교양교육운영실=김병중 △인사관리팀=조순식 △기획사업팀=유광호 △학생복지실=최정숙 △시설관리팀=정형주 △정보지원관리팀=문성국 △아간강좌교학과 교학과=김운수 △시설관리팀=권지연 △연구개발팀=김경희이다.

전보인사는 △제3캠퍼스 건립추진단 건설본부장=최창선 △비서실장=정창현 △협력담당관=차선규, 김병수 △학생선발실장=김중진 △학생복지실장=홍우열 △문화예술대학원 교학과=윤범태 △생활협동조합 사무국장=이강원 △학사지원실장=조원생 △기획사업팀장=박동수 △예산팀장=손재영 △발전기금팀장 겸 기획사업팀장=안재봉 △건축학100주년 기념사업회 기념사업팀장=김중호 △연구지원팀장=박광호 △정보지원관리팀장=박승중 △체육부장=이우용 △사회교육원 교학과장=이성진 △창업지원단 행정지원팀장=이익성 △인사관리팀장=윤동규 △제3캠퍼스건립추진단 기획팀장 겸 불교병원개원추진단 관리팀장=김재선 △아간강좌 교학과 교학과장=조경진 ▶2편으로 이어짐

보리소

전쟁과 평화

왕위를 사이에 두고 사촌형제들이 전쟁을 한다. 이러한 동족상잔의 비극적 상황에 대하여 회의를 거듭한 아르주나는 무기를 버린다.

그런데, 크리슈나는 전쟁을 해야 한다며 그 정당성을 주장한다. 사실, 크리슈나는 어지러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온 신이다.

이렇게 아르주나를 설득하는 크리슈나의 논리를 담고 있는 책이 힌두교의 성전 '바가바드기타'이다.

이렇게 보면 '바가바드기타'는 악을 소멸하고 정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하는 '정의의 전쟁(聖戰)'이라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런데, '바가바드기타'는 평화를 역설하는 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사실, 이는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비폭력의 성자를 시종 괴롭힌 문제이다.

그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바가바

드기타'를 원래 그것이 속해 있던 서사시 '마하바라타' 속으로 집어넣어서 읽자라는 해결책(?)이 제시된다.

왜냐하면, '마하바라타'에는 '평화의 책'이라 이름하는 또 다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하바라타'의 일부본인 '바가바드기타' 역시 평화를 설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간디도 그랬고, 현재의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을 통한(혹은 전쟁 이후의) 평화를 평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 "원한을 원한에 의해서 갚지 말라"는 부처님 가르침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전쟁을 하지 않는 평화만이 평화라고 본다.

따라서 전쟁을 하면서(혹은 했으면서) 평화를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적으로 보인다. 불교인에게는,

김호성
불교대학 인도철학과

동대신문 기획광고

발전기금 060-700-0119

당신의 차 하루만 쉬게 해 주십시오

학내 곳곳에 주차돼 있는 많은 차들 때문에 동학이 숨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 만이라도 '숨쉬는 동학 만들기'에 동참합시다.

오는 25일(목요일)은 이번 학기 처음 진행되는 '차 없는 날'입니다.

동대신문사

지면안내

6~7면 취업 장벽 넘기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취업현실을 살펴보고 취업준비시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알아본다.

4면 동대인의 스트레스

본교생 18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스트레스 및 자살충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본다.

11면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용 증가 원인과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알아본다.

추가지원 미비·지원시기 늦어

개별동아리 지원 확대 통해 동아리 활성화 모색해야

■ 동아리 지원금 분석

최근 동아리들이 자금 부족으로 계획한 사업을 축소하거나 일부는 활동비를 모으기 위해 회원이 단체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다.

현재 학교와 동아리연합회(회장=권준일·토목환경3, 이하 동연)가 동아리에 지급하고 있는 지원금은 △교비지원 △동아리별 추가지원 △특별지원금이다. 이 중 기본적인 지원금 외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동연이 지급하고 있는 추가지원금이다. 그러나 추가 지원금이 개별동아리에 지원되는 경우가 거의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학기 약 10여 개의 동아리가 추가지원 여부에 대해 문의했으나 단 1개 동아리만이 지원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권준일 동연

회장은 "예산이 많이 필요한 동연제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없어 추가 지원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아리 개별지원을 할 경우 공연분과 등에 지원이 치중돼 다른 분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가지원금이 동연제에 사용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동아리가 기본적인 활동을 하는 데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행사에 대부분의 자금을 소요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동아리 사정 등으로 동연제에 참여하지 않는 동아리가 있어 전체에 효과가 돌아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전동대회에서 '같은 분과 내의 동아리들이 연합해 사업할 경우 심의·지원하겠다'는 추가지원 기준안이 마련됐으나 이것 역시 같

은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분과구성은 각 동아리들의 활동 내용이 비슷하기보다 공연·학술 등 의미의 유사성 때문에 같은 분과로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이대규(신경2) 동아리 '디답돌' 회장은 "분과 내 동아리들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연계해 사업할 경우 동아리 특성을 살린 공연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성균관대의 경우 분과별 사업의 내용과 규모를 파악해 '보조금 지급은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일 경우 지원하지만 이것이 어려운 스포츠, 사회, 교양분과의 경우 답사, 여행, 학회 봉사 등의 경우 우도 지원한다'는 지급 사행세칙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고려대는 동아리 연합회 전체재정의 50%를 개별 동아리 사업금으로 지급해 동아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밖에 일부 동아리의 제출서류 지연으로 매년 교비지원이 늦어져 동아리의 책임감이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1학기부터 현재까지 사업 자금이 동아리 자체적으로 모두 충당됐으며, 이로 인해 동아리 행사가 많은 학기 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자금은 동아리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동아리 지원금이 동아리 활동의 밑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동아리 지원금을 확대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연말 1년 사업평가를 통해 지원되는 특별지원금의 경우 선정 동아리와 기준에 대해 공개적으로 알리고, 추가 지원에 대한 감사 등을 진행해 투명히 운영해야 할 것이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중앙도서관 지하 2층 인문과학실에 교수열람실이 마련돼 앞으로 강사 휴게공간 부족이 일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열람실 내에는 컴퓨터·공기청정기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회전무대

환승버스

○... '한가위 귀향버스'를 이용해 고향에 가던 일부 학생들이 휴게소에서 다른 버스로 갈아타는 일이 발생했다는데.

이유인즉 버스가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도착지가 같은 타대학 귀향버스로 갈아타게 한 것이라고.

임의로 탑승 차량을 변경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월, "한가위 귀향버스, 모로 가도 고향만 가면 된다(?!!)"

일단붙여

○...중도내외의 지정 계산관을 기피하는 학생들이 있다는데.

알아보니 엘리베이터, 도서관 전용계산관 등 지정된 계산관 외의 장소에 계산물을 부착하던 학생들이었고.

지정된 계산관의 공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관에 부착하지 않아 도서관 미관을 해치니.

이에 본 계산물을 부착하던 한 학생 월,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계산관, 있거나 없거나!"

집중분산 스캐어

○...동국관 L동 경제학 전공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수업은 유난히 집중하기가 어렵다는데.

이유인즉 강의실 안을 볼 수 있는 유리 창문이 없어 빈 강의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여는 학생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라고.

출입문에 강의실 이용 시간표 등을 붙여 수업의 흐름이 끊기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월, "동국관 L동 4층에서 강의하는 교수들의 수칙, 문쪽에서 강의하라!"

예고 없는 기다림

○...사이버 강의 듣는 학생들이 종종 컴퓨터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데.

알아보니 컴퓨터 서버 용량 부족으로 자주 마비되던 학생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접속이 될 때까지 시도하는 것이라고.

장시간 마비될 경우 복구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려 시간낭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월, "계속 두드려라. 그러면 접속될 것이다(?!!)"

하반기 학생대표자회의

구도서관 공간배치·온라인 네트워크구성 등 논의

하반기 학생대표자회의가 지난 17일 불상 앞에서 열려 △상반기 사업 보고 △구도서관 공간배치 △하반기 사업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재적인원 89명 중 37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총학생회(회장=유영민·경영4)는 상반기사업에 대해 "등록금 2% 반환과 1%장학기금 적립 등의 성과를 이뤄냈으나 학생들과 메신저 토크 등의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논의된 구도서관 공간배치에 대해 불교대는 성명서를 통해 "불교대를 이전함으로써 문화관 지역의 공간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교대 이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광호(법3) 법과대 정책국장은 "불교대가 구도서관 2층을 사용하려면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운권(야간정통3) 정통과 학생회장은 "법대 이전이 결정됐음에도 아직까지 동국관 공간 소위원회이 활동이 미진하다"며 동국관공간배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공간배치문제는 오는 29일 비상 학생대표자회의를 개최해 매듭지을

예정이다.

또한 총학생회는 하반기 주요 사업으로 학생들과 활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인터넷 언론 '동국사랑'과 계산관 모음 자료실 '만해광장'을 신설하는 등의 온라인 네트워크 구성과 △반미반전 평화활동 △총은수업 만들기 △남북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9월말에 열릴 예정이던 백로예술제전은 준비부족으로 10월말로 연기됐다.

수강신청과목 취소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수강신청과목 취소가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교학과에서 진행된다.

수강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교학과에서 취소신청서를 받아 학업지도교수에게 승인받은 후 교학과에 접수하면 된다.

수강과목을 취소한 학생은 다른 과목 신청이 불가능하며 취소 후 수강신청학점이 12학점 미만일 경우는 취소할 수 없다. 단, 4학년 재학생은 3학점 초과학점의 취소가 가능하다.

'캠퍼스 차 없는 날' 실시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

'캠퍼스 차 없는 날'이 오는 25일부터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 실시된다.

적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학교 공용 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

이와 관련해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금요일에 시행했으나 주말 출장차량이 많아 목요일로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동대회 열려 동연제 일정 등 확정

동아리 연합회가 지난 5일 전체 동아리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확정된 사안은 동아리 연합회 가을 축제(이하 동연제)를 다음달 22일부터 24일까지 열고, 지난해 락 중심으로 진행된 폐막식을 통기타,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동아리 추가 지원금은 분과 내 몇몇 동아리가 연합해 사업할 경우 심의를 통해 지원하고, 공용 공간의 경우 △연화원=그동안 도울림이 관리해 온 것을 유지하되 외부인이 이용할

경우 동아리 연합회와 공동 관리 △소공연실=시간표를 작성해 사용하도록 했다.

'남산골 한마당' 개최 체육대회·학과실무미기 등

야간강좌총학생회(회장=구자룡·영문4, 이하 야총)가 '제20회 남산골 한마당'을 내일부터 24일 까지 통일광장에서 개최한다.

한총련 완전 합법화와 야간강좌 폐지 반대를 기조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탁구·족구·농구대회 등 체육대회와 노래자랑·물물교환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학과실 꾸미기 경연대회를 실시해 평가 후 시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야총의 한 관계자는 "야총 재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대중 한마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학기 등록 연장 오는 26일까지 재무회계팀

2003학년도 2학기 2차 등록 마감 결과 등록률이 약 91%로 나타나 오는 26일까지 등록일이 연장된다. 재무회계팀은 지난 1차 등록기간 동안 등록률이 저조해 연장됐으나 이번 역시 등록한 학생이 적어 재연장하게 됐다.

추가 등록은 재무회계팀에서 접수 가능하다.

취업대비 직무적성검사 실시

재학생의 기업업무 적성 및 인성 특성 파악에 도움을 주고 인·적성검사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자 리쿠르트 적성검사연구센터에 의뢰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검사 종류 : 리쿠르트 직무적성검사
2. 검사 일시 및 장소
 - 1차 : 9월 25일(목) 오후 3시 학림관 소강당
 - 2차 : 9월 25일(목) 오후 6시 학림관 소강당
 - 3차 : 9월 26일(금) 오후 3시 학림관 소강당
3. 검사 소요시간 : 80분
4. 대상 : 1, 2, 3, 4학년 전교생
5. 전교생
 - 총비용 9,000원, 학생 본인부담 3,000원
 - 나머지는 학생상담센터와 졸업유가 지원
 - 검사 결과 및 해석은 무료
6. 접수 기간 : 9월 22일(월) ~ 9월 24일(수)
7. 신청 : 학생상담센터나 졸업유가 신청
8. 결과 배포 및 해석 : 10월 2일(목) 오후 3시, 학림관 J201
 - ※ 문의(구내전화) : 학생상담센터(3931), 졸업준비위원회(3613)

학생상담센터 · 졸업준비위원회

2학기 집단상담 안내

고민 해결, 함께 해요!

집단상담은 비슷한 고민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소규모로 모여, 내 안의 자신을 만나 고민을 해결하고, 함께 한 친구들을 이해하면서, 서로의 성장을 돕는 만남의 장입니다.

◆ 집단 소개

집단명(리더)	참가대상	일시
참 만남 집단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참나만을 통해 자기성장을 하고 싶은 동국인	매주 화 1~3시
해결 중심 집단	진로, 대인관계, 성격 문제 등 자신만의 고민거리를 명료화하여 해결책을 찾고 싶은 동국인	매주 금 2~4시

◆ 리더 : 김혜경 (상담심리전통과)

◆ 기간 및 횟수

10월 7일 ~ 11월 21일까지, 매주 화·금, 각 집단별 7회씩 진행

◆ 접수 및 문의

10월 2일(목)까지 선착순 접수 (본관 2층, 구내전화 3931, 3930)

학생 상담 센터

건강검사 공고

대학 기간동안의 개인의 건강관리 및 입사 지원시 기업들이 실시하는 건강검진 준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건강검사는 건강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검사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대상인원 : 재학생
- 비 용 : 무료
- 기 간 : 9월 29일(월) ~ 10월 2일(목), 4일간 10:00 ~ 17:00 까지 (점심시간 12:00 ~ 13:00)
- 장 소 : 본교 보건소 (본관2층)
- 검사내역 : 1) 간염검사(항원항체검사) 2) 간기능검사 3) 소변검사(당, 단백, 잠혈) 4) 빈혈검사 5) 총콜레스테롤 6) 혈압 7) 흉부엑스레이

보건소 · 졸업준비위원회

단과대학 풍물패 연합회 연습일정 및 연습시간 안내

1. 요일별 연습 일정표

구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매주		단풍연			공과대, 이과대, 불교대, 사범대	문과대, 경영대	야간강좌
2. 연습 시간 : 오후 6:00 ~ 8:20 (토요일은 오후 3:00 ~ 6:00) ※오후 8:00부터 20분은 전체관으로 소음이 가장 큰 시간임.
3. 2003-2학기 단풍연 행사일정
 - 가. 공과대, 정보산업대 연합 풍물패 정기공연 : 10월 2일
 - 나. 단풍연 판국 한마당 : 11월 7일

학 생 처

동약 학생운동의 평가와 전망을 듣는다

- ① 유영빈 총학생회장

“본교생 위한 모든 활동이 ‘한총련 운동’”

새 조직 위한 허심탄회한 논의 기대



총학생회장 유영빈(경영4) 군

본교에서 '한총련'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한총련임을 표방한 총학생회가 9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건설돼 왔고, 한총련에 소속된 단과대 학생회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본교 총학생회장 유영빈(경영4) 군을 만나 한총련을 중심으로 한 본교 내 학생운동을 되돌아보고, 그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90년대 이후 학생운동과 본교 내 한총련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내려본다면,
- = 90년대 초반 이후부터 대중은, 겉으로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듯 하면서도 사실은 획일적인 가치관을 은근히 강요하는 사회에서 살아왔다고 본다.

학생운동진영의 가장 큰 실책은 이러한 대중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학생들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문화적 측면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본다. 이는 학내활동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총련만의 운동'이 있다는 듯 특정 정파의 단체처럼 비쳐지는 게 아쉽다. 한총련은 대학총학생회의 연합체일 뿐이므로, 학생회 활동이 곧 한총련의 활동이다. 다양한 논의가 가능한 조직임에도 이러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것 같다.

- '학생운동'과 '학생회 운동'이 분리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즉 행정을 담당하는 학생회가 특정 정치적 이념을 지닌 정치조직이 되어서는 안되고, 다만 '논의의 장'을 제공하는 조정자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 말이다.

= 만약 학생회의 활동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미 한총련의 '운동'이 아니다. 한총련은 대학총학생회의 '연합체'이기 때문이다. 즉 학생회를 벗어난 한총련의 운동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90년대 중반부터 등장해 이미 낡은 화두가 되어버린 '학생회 위기론'. 최근 각 학생운동진영이 학생운동의 개혁을 위한 가시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지난 7월 전국학생회협의회가 자율과 연대에 기초한 학생사회 재편을 위해 '해소'한 한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또한 새 조직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이에 본교 학생사회를 이끌고자하는 이들을 만나, 본교 내 학생운동에 대한 전망을 들어보기로 한다. 편집자

다만 한총련에 소속된 학생회들이 '반미' '통일' 지향적인 사회·정치적 입장을 전제, 관련 활동을 벌이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때문에 학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을 게을리한 것은 전혀 아니다.

매주 진행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제안을 받고 토론을 벌였으며, 독자적인 임시기구들을 만들어 그 결과를 실행에 옮겼다. 노동자의 날 학내행사나 파병반대에 대한 성명에 대한 논의가 대표적인 예이다.

- 총학생회장으로서 파악한 본교 학생사회의 특성은 어떠한가.

= 대부분의 학생들이 등록금 인하 투쟁과 같이 특별한 학내 정치적 사안에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면서도, 평소에는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지 않는 듯 하다.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학내사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학생회에서 도와야 한다고 본다.

- 한총련 소속인 총학생회에 냉소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총학생회가 학생들에게 관련된 사안보다는 한총련 중앙사업에 더욱 관심을 쏟는

다는 비판이 학생들 사이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오해다. 총학생회의 모든 사업은 본교생들에게 필요한 지의 여부가 가장 먼저 고려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이 거센 이유는 많은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소속감 결핍'은 구성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적 측면을 더욱 잘 다룰 수 있는 학과·단과대 학생회 체계가 허약했다는 점에서 비롯됐다는 생각이다. 때문에 동약 내 학생운동의 건강한 토대는 학생회 체계를 튼튼히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 한총련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 조직' 논의와 관련해, 본교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

= 한총련의 새 조직은 학내 구성원 모두의 문제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에게 한총련에게 바라는 점을 허심탄회하게 듣고자 한다. 잘 운영될 수만 있다면 본교차원의 독자적 기구를 만들어 이러한 활동을 벌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송윤경 기자 itsu@dongguk.edu

사설

또다시 파병은 안된다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이라크 파병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의 '재건'을 위해" 1만 명에 달하는 전투병과 비동원분담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국민여론을 수렴, 신중히 검토한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파병 요청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이번 파병은 지난번과 달리 의료·공병부대가 아닌 교전이 예상되는 전투병이기에 위험성은 더 높을 수밖에 없고 명분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이라크 파병 반대 목소리가 지난 3월보다 더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만일 정부가 미국의 파병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여론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난 16일 제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했듯이 미국의 파병 요청은 사실상 "이라크에 대한 선제공격 전략 실패의 고백이자 부도덕한 전쟁의 책임과 부담을 국제사회에 전가하려는 또다른 일방주의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전쟁 이후 이라크의 상황은 미국의 식민통치라는 더 억압된 ' 지배'로 대체된 것에 불과한 데다가 경제 악화, 유혈 충돌 등으로 혼란과 비극은 더하다. 더욱이 전쟁 명분이었던 대량살상무기는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보 조작에 불과했다는 게 드러나면서 미국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든 꼴이 됐다. 게다가 부시 정부는 이라크 무장해제세력의 공격으로 물적·인적 부담이 커지면서 어떻게든 신뢰 실추나 피해 없이 해결하려는 조바심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부탄을 들어줄 명분은 추호도 없다. 북핵문제나 경제 등 국익을 위해 파병을 해야한다는 '국익론'의 실체가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다. 이미 인도, 브라질 등은 미국의 파병요청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제 우리 차려다. 이라크의 '비극'을 더 이상 부추기지 말자. 우리를 위해서도, 이라크를 위해서도 그들의 '비굴한 요청'에 '당당한 거절'로 답해주자.

동국만평

장미애 substory@hanmail.net



만경대 필화사건은 아직 진행중

2년 째 일심공판 계류 중 ... 사법부의 판결원칙 정립 필요

지난 2001년 9월 '만경대 필화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된 본교 강경구(사회학) 교수 사건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강 교수는 지난 2001년 평양에서 열린 8.15통일대축전에 남측 대표단으로 참석해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긴 것과 방북 전 주체사상토론회에 참석해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배포한 것 때문에 2001년 8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그 해 10월 12일 보석 석방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동안 4번의 공판이

있었으나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고 지난해 8월 열린 공판 이후 재판이 다시 열리지 않는 등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본교 김상경(법학) 교수는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원의 업무가 과다할 경우 다소 지연될 수는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타 형사재판에 비해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비단 강 교수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장희(한국외대) 교수와 박지동(광주대) 교수 등은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지난 97년 12월 신문방송학과 수업교재로 이용한 본인

의 저서 '진실 인식과 논술 방법'이 북한 주체사상과 사회주의를 찬양했다는 혐의를 받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됐고 6년여에 걸친 재판 과정을 거쳐 지난달 16일야야 무죄판정을 받았다.

또한 이 교수는 통일에 대한 어린이 교양 교재로 펴낸 자신의 저서 '나는야, 통일1세대'가 북한을 찬양하고 남한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혐의로 지난 97년 12월 기소됐다. 그 후 2001년 1,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판이 대법원에서 계류되고 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이장희 교수는

"기소될 경우 출국 등이 까다로워져 국외 연구활동에 지장을 받으며 오랜 기간 동안 기소되면서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교수들의 사건은 타 형사재판에 비해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한 법과대학 교수는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어떤 판결이든 언론의 비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 교수 사건의 전망이 마냥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박지동 교수 재판의 담당 판사가 "국가보안법해석에 사상의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며 자유민주적 질서에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같이 법원측도 판결원칙을 정립해 나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건학100주년 동국도약기원 100만 등(燈) 달기

동국사랑, 손모아 마음모아...

동국대학교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한데 모아 동국의 도약을 염원하는 「건학100주년 동국도약 기원 100만 등 달기」 운동을 펼칩니다. 여러분의 헌등이 2006년 민족의 대학에서 세계중심대학으로 웅비하는 100년 동국과 여러분의 앞날을 환하게 밝히는 지혜와 복덕의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동국사랑에 한마음이 되어 주십시오!

참여안내

- 참여방법
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의 정성을 소중히 접수하여 헌등씩 헌증함
- 접수기간
2003년 8월 ~ 2006년 5월 8일
- 부동산, 주식 및 유가증권 등 수증물품도 가능
- 무통장입금 (예금주 : 동국대학교)
조흥은행 : 313-03-002943
외환은행 : 065-13-19061-0
신한은행 : 216-05-005036
국민은행 : 068-01-0373-353
제일은행 : 107-10-119210
우리은행 : 064-032276-01-004
우체국 : 012328-01-001567
- 헌등하신 분의 명패는 본교 정각원에 보존됩니다.
- 100만원 이상 기부하시면 동국대학교 대각전에 부처님을 봉안하여 드리며, 동국VIP카드를 발급하여 본대학교 부속 병원 어디에서든 의료비 할인혜택과 친절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영수증 발행 및 세금공제

동약론

책임감 미달



“이번 대표자회의도 역시 사람이 별로 없네” “이젠 없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는데” 지난 17일 팔정도 앞에서는 '2003 하반기 정기학생대표자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이번 회의의 정족수는 45명이었으나 이를 넘기지 못해 성사되지 못했다.

결국 2학기 학원자주화투쟁 계획, 온라인 네트워크 구성사업, 백상예술체전 기획 등의 안건을 의결시키지 못해 학생회사업에 차질을 가져오게 됐다. 의결되지 않은 채 시행되면 사업의 명분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족수 미달이 이번만의 일은 아니다. 올해 열린 3번의 학생대표자회의 중 정족수가 회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채워진 적은 한번도 없었다.

그렇다면 왜 학생대표자회의가 성사되지 못하는 것일까.

학생대표자들의 책임감부족을 들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부분 단위에서 절반 미만의 대표자만 참석했다. 뿐만 아니라 이과대는 9명의 대표자 중 부득이하게 참가하지 못한 2명을 제외한 7명이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 참가하지 못했으며 다른 대표자들이 참가하지 않은 것은 몰랐다”는 한 대표자의 말은 학생대표자회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학생대표자회의는 소규모단위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학생대표자회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데 더욱 어려워지고 이는 '학생회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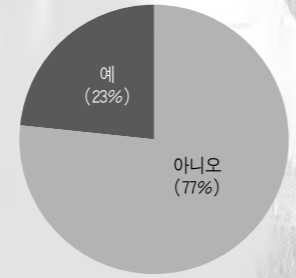
오는 29일 구 중앙도서관 공간문제도 다시 학생대표자회의가 열린다고 한다. 이번 학생대표자회의에서는 학생대표자들이 스스로의 책임을 '자각' 하고 회의에 참석하길 기대해본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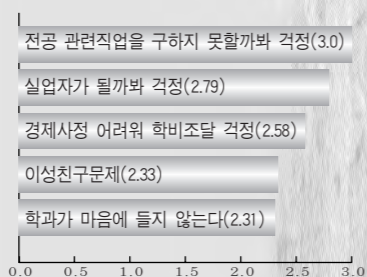
동대인! 최고 스트레스는 '취업 및 진로'

학부생 185명 설문조사 ... '자살충동 느껴봤다'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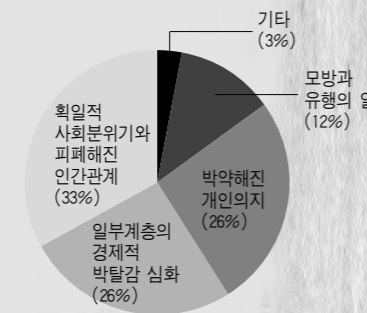
▲자살충동을 느껴봤습니까?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최근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자살이 심드름처럼 번지고 있다. 일간지에서는 생활고를 비판한 일간지 특종 기사를 한 이야기나 실업을 비판한 명문대생이 투신한 이야기 등 각종 자살소식이 이틀에 하루 꼴로 등장한다.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만 해도 하루에 36명, 즉 1시간에 1.5명이 자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세태별로 분석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지난 2001년까지 자살은 13-18세의 사망원인 3위, 15-44세 사이에서는 4위를 차지했다.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보다도 높은 것이다.

한 사람이 자살을 선택하기까지는 수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스트레스'이다. 스트레스는 자신에게 요구된 것을 스스로 따라가지 못할 때 생기는 복합적인 반응.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삶의 활력을 살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우울증이나 각종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자살은 이러한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지금 본교생은 어떤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을까.

지난 19일 본교생들 1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본교생은 대체로 '보통' 이상의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취업 및 장래문제에 큰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신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묻는 질문에 85%의 응답자가 보통수준 이상의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생각한다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는 생활분야는 역시 '취업 및 장래문제', 각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를 5점 척도로 계산했을 때, '전공에 맞는 직업을 구하지 못할까봐 걱정'이라는 대답이 3.0점으로 '최고의 스트레스 요인'에 올랐고, '실업자가 될까 걱정'이라는 대답 또한 2.79점이나 됐다. 그동안 청년실업을 비판한 자살이 연이어 일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은 부분이다.

그밖에 높은 점수를 얻은 답변은 △집안의 경제사정으로 학비조달이 힘들다(2.58

점) △소속되어 있는 학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2.31)로, 진로문제에 이어 금전적 문제와 학업문제가 스트레스를 느끼는 많이 느끼는 분야로 꼽혔다.

주목할 만한 점은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적 요인보다,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정신적 징후에 대한 공감도가 높다는 점이다. 역시 5점 척도로 계산했을 때 △불안하고 짜증이 난다 △피곤하고 의욕 없다 △자신감 없고 자책한다 △두통, 소화불량이나 타난다 등이 모두 2.5점을 넘기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면 스트레스의 차원을 넘어, 자살충동까지 느껴본 이는 얼마나 될까. 전체 응답자 중 23%, 열 명 가운데 2명 꼴로 자살충동을 경험한 셈이다. 또한 이들 중 약 60%는 자살방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자살을 위한 준비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가운데 전문 심리치료를 받아 본 사람은 2%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한국심리학회 구진영 연구원은 "한국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은 치료대상이 아니라고 믿는 성향이 강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뇌와 정신을 분리해 생각해, 오히려 스트레스와 우울증 치료가 더디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근 자살율이 급증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확실적인 목표를 강요하는 사회분위기와 피폐해진 인간관계'라는 대답이 48%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박탈감(39%)이 그 뒤를 이었다.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 안전망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는 결과다.

"어제 그들이 버리고 간 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어느 학자가 잇따른 자살현상을 두고 한 말이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그가 자살을 선택하기까지의 수많은 요인들은 살아남은 우리의 문제이다. 때문에 자신의 스트레스와 그 근본원인을 살펴보는 일은, 우리사회의 새 출구를 모색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사회부 society@dongguk.edu

나도 혹시 우울증?

자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울증이다. 전문가들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80% 가량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울증은 평생에 한번 이상 앓을 가능성이 15%에 이를 정도로 비교적 흔한 질병이다. 약물치료로 증상이 빠르게 치료되지만, 가볍게 여겨다가는 만성화되어 정신적 합병증을 동반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고려대 안암병원 우울증센터가 만든 우울증 자가진단표를 통해서 자신의 우울지수를 알아보기도 하자.

평가는 각 문항마다 4단계로 '항상 그렇다'는 3점, '자주 그렇다'는 2점, '가끔 그렇다'는 1점 '아니다' 또는 '거의 그렇지 않다'는 0점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모든 문항에 점수를 합한 것이 자신의 총점이다. 합계가 21점 이상이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아야 한다.

- 1.자꾸 슬퍼진다. 2.스스로 실패자라는 생각이 든다.
- 3.앞날에 대해 비관적이다. 4.일상생활에서 만족하지 못한다.
- 5.죄책감을 자주 느낀다. 6.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 7.나 자신이 실망스럽다.
- 8.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 9.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 10.평소보다 많이 운다.
- 11.평소보다 화를 더 많이 낸다. 12.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
- 13.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한다.
- 14.내 모습이 추하게 느껴진다. 15.일할 의욕이 없다.
- 16.평소처럼 잠을 자지 못한다. 17.쉽게 피곤해진다.
- 18.식욕이 떨어진다. 19.몸무게가 줄었다.
- 20.건강에 자신감이 없다. 21.성생활에 대한 관심을 잃었다.

이주의 시사 키워드

인티파다

인티파다(intifada)란 아랍어로 '민중봉기'라는 뜻으로, 난민이 되어 일부 지역에 갇혀 위험하게 살아야 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분노를 담고 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유혈 사태 또한 3년 전의 인티파다 이후 계속된 것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분쟁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만큼이나 길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에게 각각 팔레스타인지역에 독립국가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이종으로 했는데, 이 문제는 유엔으로 넘어가 결국 유대인의 이스라엘만 국가로 인정됐다. 때문에 약 2천 여 년간 팔레스타인지역을 분지지로 살아온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난민이 되어 동 예루살렘 및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 등 일부지역에서만 지낼 수 있게 된 것이다.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를 국가로 인정하고 동 예루살렘을 비롯한 몇몇 지역을 그 영토로 보장하는 평화회담이 진행 중이던 2000년 9월, 이스라엘의 야당 당수 샤론이 마치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인하러도 하듯 군대를 이끌고 동 예루살렘 성지를 방문했다. 이에 분노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돌맹이를 던지는 등 봉기를 일으킨 것이 가장 최근의 '인티파다'이다.

이후 샤론은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었고, 이-팔간 유혈분쟁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알려진 것처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살 폭탄테러'만이 유혈분쟁의 전부는 아니다. 탱크와 헬리콥터로 무장한 이스라엘 군이 무차별적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병원도 선택의 시대입니다. - 내 집처럼 편안한 동국대학교 '강남한방병원'으로 오십시오

한·양방 협진 / 최우수 의료진 / 첨단의료시설 등 최상의 진료 서비스

동국대학교 강남한방병원

한인고대학 부속 **이민이민이민** 세계 제일을 추구 합니다

한국불교 1천6백년, 민족의 등대지기 1백년, '동국'의 향기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 자비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생이 있는 곳에 불교 손길이 있듯 중생이 아프면 불교가 앞장서서 치유해야 합니다. 그 맨 앞에 동국대학교 의료진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의료진은 이러한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인술을 통하여 중생을 구제하는데 앞장서기 위하여 경주한방병원, 경주병원, 포항병원, 분당한방병원, LA로얄한방병원등을 개설, 운영한데 이어 서울 강남 중심지에 또 하나의 역사 - 강남한방병원이 개원 12주년을 맞이하여 세계제일의 한방병원을 향해 서울시민의 사랑과 입원, 외래환자, 2천만 불자의 사랑을 받으며 가장 모범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장수는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인간화·첨단화의 바탕위에 한방과 양방이 어우러진 21세기 열린 병원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 강남한방병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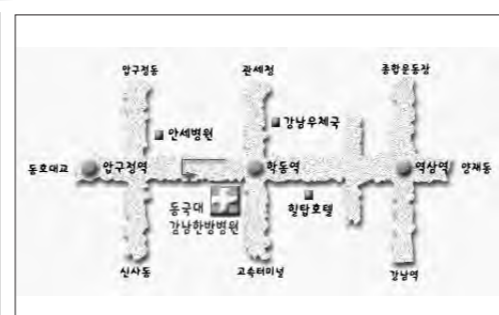
진료과목안내

진료과	진료교수	전문진료분야	클리닉/검사
내과	1 정지천	상임(중풍, 당뇨병, 전립선비대)	성인병 내상 예방의학
	2 임성우	신장비뇨기질환 (신장병, 부종, 전립선염, 성창기질환)	
	3 이원철	순환기질환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동맥경화) 소화기질환(위장병, 간염, 변비, 설사) 호흡기질환 (감기, 기관지염, 천식)	
부인과	김동일	경녀기장애, 수축성중, 월경병, 불임증, 골관절, 자궁수술 후유증, 유산, 산후통, 성기능 장애, 여성 건강상담, 여드름 및 비만	경녀기 불임
소아과	최인화	하위아, 저신장증, 만성기침, 소아천식, 학생건강, 아노증	성 장
가정의학과	배재익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종합검진센터
진료센터	정우미	CT, X-RAY, 초음파, 특수촬영	

한·양방 종합검진센터

찾아오시는 길

- 종합건강검진
 - 기본, 일반, 정밀검진
 - 고직원검진
 - 예비부부검진
- 성인병건강검진
 - 공무원검진
 - 고직원검진
 - 직장인검진
- 채용신체검사



◇좌석버스 : 37, 64, 64-1, 731, 72, 933
 ◇일반버스 : 38-2, 66-2, 62-1, 66, 117, 141-2, 212
 ◇지하철 : 7호선 학동역 7번출구(도보1분)
 2호선 역삼역 7번출구 38-2 승차(5분)
 3호선 압구정역 4번출구 38-2 승차(3분)

동국대학교 강남한방병원
Dongguk Univ. Gangnam Oriental Hospital

진료비 감면 : 스펀, 본대학 교직원, 교직원가족, 재학생, 동문, 불교신도 진료시 진료비 감면 규정에 의해 감면해드립니다.
대표전화 : 02)3416-9700, **접수** : 3416-9725~6, **입원실** : 3416-9733

동국의료원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인술을 통하여 중생을 구제하고, 양질의 의료시혜와 친절한 간호로 봉사하여, 서로 화합하고 연구 노력하는 의료인으로서 국민보건 향상과 조국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합니다.

BOOK 카페 | '제국'을 둘러싼 논쟁 |

제국주의를 넘어선 제국

역사적 진보인가 현실부정 관념론인가



제국
네그리, 하트 저
윤수중 역
펴냄

“오늘날의 세계는 탈중심화되고 탈영토화한 규칙이 끊임없이 확장돼 지구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제국'이며, 이는 제국주의보다 낫다” “'제국론'의 실천적 함의는 미국 제국주의가 주도하는 세계화의 승인과 투항일 뿐이다”

'제국론'과 '제국론 비판' 사이의 논쟁이 뜨겁다. 2001년 우리말로 옮겨진 이후부터 다양한 해석과 의문이 불거져 나왔던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의 '제국'이 바로 논쟁의 중심이 되는 '제국론'의 정립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제국인가, 제국주의인가를 주제로 지난 5일 서강대에서 열린 맑스코뮤날레 정점토론회의 정점 역시 이 '제국'으로, 이에 대한 상반된 두 입장의 팽팽한 논쟁이 벌어졌다.

먼저 '제국'을 번역한 윤수중(전남대 사회학) 교수와 조정환 갈무리 대표는 제국론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새로운 사상'으로 규정했다. 윤 교수는 네그리와 하트의 논지를 대변, "제국주의는 끝났다. 국민국가들은 이미 정복에 의한 역사적 제

인 제국주의를 넘어선 하나의 강력한 질서, 즉 제국의 경향 안에서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테면, 제국과 지구화는 역사적 현실이며 필연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개별국가적, 민족주의적 저항이 아니라 오히려 제국화를 통한 대항 제국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 제국론자들의 주장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쪽쇄에 포획된 다중(multitude)의 잠재력을 세계화의 가속화를 통해 전면화하지는 일종의 '발상의 전환'인 셈이다.

조정환 대표 역시 "자본에 대한 지구화의 무차별적 폭력에 맞서기 위한 대항방식은 권력에 호소하는 반전운동의 평화주의적 전망이 아니라, 다중의 항구적 자치를 위한 투쟁에서 찾아야 한다"고 맥을 같이 했다. 이는 그의 저서 '제국의 석양, 촛불의 시간'이나 '지구제국'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나는 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네그리와 하트의 주장처럼 제국은 역사적 '진보'이며, 제국주의론에 기반한 반지구화 투쟁은 역사적 '반동'인가.

손호철(서강대 정치외교학) 교수와 정성진(경상대 경제학) 교수는 이러한 도발적 주장에 철저히 반기를 든다. 손 교수는 "민족주의의 억압성을 우려해 자본의 세계화에 저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저항적 민족주의의 진보적 측면을 지나치게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항지구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자본의 전지구화 과정을 가속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정성진 교수 역시 제국론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제국은 제국주의간 경쟁과 전쟁 경향의 소멸을 주장하며 국가에 의한 매개, '가장 약한 고리'의 이론도 거부할 뿐 아니라 어떠한 중심적 체계모니도 부재한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그는 강조했다. "오늘날의 세계는 미국 제국주의를 중심으로 지배되는 자본주의이며, 세계화란 그것의 확장과정의 다른 말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다중' 개념 역시 다중 내부에서의 계급적 차이의 문제는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제국론의 전제에서부터 대안은 이르는 논쟁은 토론회 이후에도 온라인 공간으로 확대, 여러 학자들의 열띤 찬반토론회를 계속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이 쟁점이 지닌 정치사회학적 의미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 혹은 세계는 그것이 제국이든지 제국주의이든지, 대안을 찾아야 할 모순과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본의 지구화에 대항하는 반지구화 투쟁과 보다 적극적인 대항 지구화 투쟁을 어떻게 결합함으로써 대안을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닐까.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모의국제연합 27회 모의유엔총회

UN 뛰어 넘어 대학인의 토론행사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모의국제연합이 '난민에 관한 국제 사회의 협력 증진'을 의제로 한 제27회 모의유엔총회(이하 총회)를 지난 19일 한국외대 국제관 애경홀에서 열었다.

1959년 'UN군속'이라는 의제를 시작으로 매년 국제사회 이슈를 주제로 채택하는 모의 UN 총회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대학생들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담아내기에 단순한 대학생들의 학술행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올해의 의제는 9·11테러 이후 난민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난민 지위 규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등 국제 상황을 반영해 설정한 것. 세부적인 의제는 난민민의 지위와 인권보장에 관한 기준확립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UN의 역할로, 대학생들이 직접 북한 미국 중국 영국 등 12개국의 대표 위원을 맡아 각국의 입장을 밝히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첫 번째 소주제와 관련하여 미국 대표(남승현=고려대 법4)는 "경제적 난민도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최근에 미국 상원에서 북한 난민 구호 법안을 통과시켜 새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중국 대표(임서정=한양대 정의3)는 "탈북자들은 단순 이탈자로 대부분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난민으로 규정하기에는 근거가 적다"며 "자국 내에서의 사태에 대해 일부 서방국들의 내정 간섭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북한 대표(심은용=한국외대 정의3) 역시 "탈북자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

하는 것은 오히려 인민들이 불만이탈하도록 자극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각국의 입장 발언과 토론을 거쳐 대표위원들은 △추방 및 송환의 금지 범위를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까지 확대, △난민 정보 교류를 위한 난민요청 신청카드(ARC)제도 구축 등에 대해 합의했다.

두 번째 소주제에서는 케냐 대표(한승진=연세대 사회계열1)가 "세계 평화를 위해 설립된 UN이 몇몇 강대국의 이익단체로 변해가고 있어 약소국의 중요 사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자국의 정치적 목적보다 인류를 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외에 △국제기구와 NGO간 연대 강화 △종교 분쟁으로 인한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UN총회 산하 종교위원회 설립 추진 △유엔의 선도적 역할 등에 대해 논의를 거친 후, 총회를 마무리지었다.

한편, 일본 대표 위원으로 참석한 본교 이근희(일본4) 양은 "국제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난민'에 대한 성찰 등 다방면에서 스스로를 키우는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설>
dbswls@dongguk.edu



사상가 이야기

1985년 필자는 미국 Emory대학에서 알제리 태생 프랑스의 포스트구조주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의 '쉬블레쓰(Shibboleth)'라는 제목의 강연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쉬블레쓰는 구약성경 사기에 나오는 '목식의 이삭' 또는 '알곡'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방언으로, 이 단어를 발음할 수 있는가를 봄으로써 셈족의 두 종족인 에브라임과 길르앗족을 구분, '슈(sh)' 발음이 없어 '스(s)' 발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에브라임족 도망자를 길르앗족의 국경경비대원들이 색출해 처벌하는 장치로 삼았다고 한다. 데리다는 이 강의에서 바벨탑 붕괴 이후에 언어가 분화되어 결국 인간은 그 이래로 원래의 바벨탑을 다시 구성하기 위한 '상징적 죽음'을 구성하는 언어적 노력이라는 자신의 프로젝트의 단편을 제시했다.

이 강의 이후로, 필자는 현대철학에서의 언어적 전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 데리다의 철학에 심취하게 되었다. 데리다는 자신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니체와 하이데거의 문맥에서 해체주의의 계보학을 이루었고 블랑 바르트, 미셸 푸코,

자크 라캉 등과 함께 포스트구조주의를 구성하여, 포스트모던적인 문화현상에 이론적 선구자로 남게 되었다.

데리다의 전락은 오랜 시간과 집중을 요하는 문체로 제시되어 있지만, '하얀 신화(White Mythology, 1972)'에 비유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고대의 동전(medallion)이 장구한 세월 끝에 양면에 새겨진 화폐로서의 명목가치가 지워져 단순히 동전의 형태만을 지닌 채 그 실질가치를 상실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언어적 기호가 바로 이 동전을 대변, 역사적 기록과 인류의 기억 속에 분질가치는 사라졌지만 존재한다는 역설적 논리를 함축하고 있다. 언어가 표출하고 있는 존재의 의미는 프로이드의 글쓰기 패드에서처럼 지워졌지만 존재한다는 부재의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다.

데리다의 구체적 전락은 명목과 실질을 동시에 이중부호화한 글쓰기에서, 자세한 읽기와 명상적 정독을 통해 이중해독을 행하게 되는 가치의 재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전락을 위해 데리다는 차연(differance), 흔적(trace) 등을 전락적 개념도구로 삼는다. 이를 통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래의 음성중심주의, 로고스 중심주의의 이분법적 사고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서구 형이상학의 극복을 위한 열린 구조의 사변이라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다.

자아도취적 편견과 익숙하고 인지한 것에 대한 집착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열림의 결실들이 되고 있다. 니체, 하이데거 사상의 맥을 잇는 데리다의 해체주의적 사고의 틀과 전락은, 우리 자신의 세계관을 들여다보고 나의 일상생활을 반영하게 해준다. 또한 고급문화와 하급문화의 경계선이 허물어진 포스트모던 시대의 대중문화를 체험하는 광범한 일상 의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틀을 던져, 열린 사고와 열린 세상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 프랑스 철학자
• 근원 저편에,
에크리튀르와 시차성
등 저술

교수동정

△김양수(중어중문)=학회참석 및 논문 발표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방문.

△김영순(화학)=학회발표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미국 방문.

△박순성(북한학)=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방위전략 세미나 참석 위해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미국 방문.

△강성운(북한학)=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동북아 평화협력체 모색 학술회의 참석 위해 오는 23일부터 27까지 북한 방문.

△강호덕(산림자원)=고비사막 조립 시험지 임목 생산량 조사위해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방문.

내 지성을 뽐내는 방법?

동대 학술 · 문학상에 답이 있다!



학술상 · 문학상 작품 모집

제41회 동대 학술상

1. 행사목적 : 학생들의 우수한 연구업적을 모집·시상하여 학업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모집분야 : 인문과학상 - 장원, 가작
사회과학상 - 장원, 가작
자연과학상 - 장원, 가작
3. 작품접수 : 2003년 10월 27일(월) ~ 11월 7일(금)까지
4. 입상발표 : 2003년 11월 17일자 동대신문 지상
5. 상금 : 소정의 장학금

제18회 동대 문학상

1. 행사목적 : 우수한 문학도 발굴을 통하여 빛나는 문학 전통을 계승하고자 함.
2. 모집분야 : 시 부 - 장원, 가작
소설부 - 장원, 가작
희곡·시나리오부 - 장원, 가작
3. 작품접수 : 2003년 10월 27일(월) ~ 11월 7일(금)까지
4. 입상발표 : 2003년 11월 17일자 동대신문 지상
5. 상금 : 소정의 장학금

취업의 장벽 넘어

취업난 속 쏟아지는 '젊은 실업자'

청년실업 사회적 문제로 부각 ... 정부 '청년실업대책협의회' 구성

'사상 유례 없는 최악의 취업난' 대졸 이상 고학력자 취업난 심각

어느 순간부터 신문이나 뉴스 방송 등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러한 제목의 기사들은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다. IMF 이후 심각한 취업난이 현재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 실업률(15세~29세)의 경우 몇 년간 6% 포인트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8월의 청년 실업률 역시 6.9% 포인트·실업자 수 34만 4천명으로 조사돼 '젊은 실업자'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의 청년들이 향후 2, 30년 후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실업률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 인적자원 형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지속적 경제성장의 토대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청년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은 첫째로 기업들이 경제 성장세 둔화 등의 이유로 구조조정을 통해 일자리를 감소하

고, 신규채용보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면서 취업의 문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층 구직자들이 대기업을 선호하고 중소기업에 기피하려는 경향을 보여 취업의 대상을 한정짓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8일 청년실업대책협의회(위원장=최경수·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 이하 협의회)를 구성해 △공공로영역으로 '노는' 인력 흡수 △인턴지원제권장 △교육연장제 등 지난 김대중 정부에서 내놓았던 안보다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이번에 구성된 협의회는 시민단체·언론계·학계·기업계 등 민간인사 11명과 정부부처 및 산하 연구기관 공직자 12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실무지원을 위해 관련 공무원 및 연구원으로 구성된 실무기획단(△기획총괄팀=국무조정실 △취업지원팀=노동부 △일자리창출팀=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산학협력팀=교육부)을 운영한다.

협의회는 이러한 실무기획단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 민간 인사의 의견을 더해 현행 청년실업 대책의 문제점을 분석, 대안을 마련하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일자리까지도 감안한 정책을 개발해, 중장기적인 인력수급 전망체계 구축으로 노동시장과 학교 교육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달 중에 회의를 진행한 후 공청회 등을 거쳐 11월말까지 '청년실업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 실무 담당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김국일 사무관은 "협의회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생각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실행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 속에 '발벗고' 나선 정부, 협의회가 위와 같은 구성 초기의 목표를 잊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에 접근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해본다.

김진성 기자
yearn@dongguk.edu



학교와 학생들의 취업난 극복하기

학교 - 취업관련 교과목 개설 등 보안 필요 학생 - 학내 취업정보 적극 활용해야

본교 재학생의 약 1.5%에 해당하는 19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본사 취업관련 설문조사결과, 학생들은 취업준비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정보부족을 꼽았다. 이력서 작성법부터 면접요령, 각 기업들의 모집요강 등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다.

"취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취업정보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본교에서도 취업정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본교 홈페이지의 '취업정보'란을 클릭하는 것이다. 홈페이지 개편 후 취업정보란에는 △기업별 모집요강과 면접요령 △취업동향 △취업 성공담 △취업특강 등의 내용이 수록돼 채용 정보와 이력서작성법 등에 한정된 기존 홈페이지보다 다양하고 신선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취업지원팀(본관 3층) 출입구 옆 게시판에서는 언제나 채용공고를 접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팀에 메일링서비스를 신청하면 수시로 취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좀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은 없나요?"

취업지원팀에서는 올해 초부터 학생 개개인이 선호하는 기업의 면접요령을 분석해 20여분 동안 모의면접을 치르고 모니터링하는 '실전모의면접'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원하는 분야와 학업성적 등을 기재해 취업구인등록을 할 경우, 취업지원팀이 이를 파악해 해당분야의 기업에 추천해준다.

또한 본교는 취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어실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영어패스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공분야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동국해의탐방'을 비롯한 여러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학생상담센터(본관 2층)에서 진행되는 직무적성검사와 진로상담 등을 통해 저학년 때부터 전문적인 진로탐색이 가능하다.

"취업관련 강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지난해 직업탐구가 폐지된 후 현재 본교의 취업대비강좌는 교

직이수 외에 전문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교에서 진행되는 취업특강 역시 이력서 작성법과 면접요령 등 일부 주제에 한정돼 이를 보완하지 못하고 있어 취업관련 강좌미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취업과 관련한 대부분의 지원을 담당하는 학교의 취업지원팀과 학생기구 졸업준비위원회간의 정기적인 의견교환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이로 인해 학교측은 취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며, 학생들은 학교측의 취업정책 및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학교정책과 학생들 간의 괴리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 정기적인 의견교환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교측은 학생 입장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때, 취업의 문은 보다 쉽게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본교 학생들이 말하는 취업준비시 어려운 점

△가 기업체의 채용정보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왜 내 눈만 피해서 돌아다니는지...

△프로그램으로 취업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없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누가 나 좀 도와줘요!

△사람은 많고 취업문은 좁다!
△서울대, 연·고대가 아니면 취업하기 힘든 학벌주의, 이제 타파해야할 때입니다.

△영어와 별로 상관도 없는 회사에서 왜 토익 점수를 보는건지..... 게다가 영어회화를 보는 회사는 뭐야?
△'경력자 우대!' 우리 같은 학생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떤 자격증을 따야지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아무거나 준비할 수도 없고.....

△여성이러니 이유로 채용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때 가장 힘들고 화난다.

2004학년도 전기 동국대학교 대학원 특별전형 공고

■ 석·박사과정 및 학과간 협동과정 ※(경주)학과는 경주캠퍼스에 개설된 학과임.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계	불교, 선, 인도철, 국어국문, 영어영문, 독어독문, 일어일본, 한문(경주), 중어중문, 사, 미술사, 철, 윤리문화, 교육, 유아교육, 법, 정치, 행정, 경찰행정, 사회, 북한, 신문방송, 경제, 경영, 무역, 회계, 정보관리, 관광·호텔경영(경주), 식품자원, 경제, 지리	불교, 선, 인도철, 국어국문, 영어영문, 독어독문, 일어일본, 중어중문, 사, 미술사, 철, 윤리문화, 교육, 유아교육, 법, 정치, 행정, 경찰행정, 사회, 북한, 경제, 경영, 무역, 회계, 정보관리, 관광·호텔경영, 식품자원경영, 지리
자연과학계	수, 물리, 화, 통계, 반도체과학, 수학교육, 농, 임, 생물, 가정, 조경(경주), 생명공학(경주)	수, 물리, 화, 통계, 반도체과학, 수학교육, 농, 임, 생물, 가정, 조경(경주)
공학계	전자공, 컴퓨터공, 전기공, 토목환경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시스템공, 전자기산(경주), 기계공, 안전공(경주), 정보통신공	전자공, 컴퓨터공, 전기공, 토목환경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시스템공, 전자기산(경주), 기계공, 안전공(경주), 정보통신공
예체능계	연극영화, 미술, 체육	연극영화, 체육
의약계	한의(경주), 의(경주)	한의(경주), 의(경주)
학과간 협동과정	멀티미디어 (연극영화, 전자공, 컴퓨터공, 경영)	
	전자상거래 (경주: 경제, 국제통상, 정보산업)	

■ 국가지원 연구 프로젝트 사업 및 관련 학과

분야	지원기관	사업단(팀) 및 연구센터	선정(관련) 학과	특 전
인문사회	교육인적자원부	불교문화사상사 교육연구단	불교학과	장·단기해의 연구 및 학과별 선발 절차를 거쳐 장학금 지급
	학술진흥재단	한국어나이즘 100년 연구팀	윤리문화학과	참여 대학원생에게 매월 연구비 지급
	학술진흥재단	조선불교통사 연구팀	선학과	.
	학술진흥재단	연행록 해제팀	국문학과	.
자연계열	한 권 부	환경친화형 OX재 개발팀	화학과	.
	과학기술부	양자기능반도체 연구센터(SRC)	물리·반도체과학과	참여 대학원생에게 소정의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
공학계열	과학기술부	멀티미디어기술 연구센터(ERC)	전자공학과	참여 대학원생에게 매월 연구비 지급
	산업자원부	산업용 공정제어밸브 표준화팀	기계공학과	참여 대학원생에게 매월 연구비 지급
	중소기업청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과대학 정보산업대학	.
의약계열	과학기술부	한의학 연구실	한의학	.

- 모집 인원 : 각 학과별 약간 명
 - * 본 대학원은 석사과정 3학기, 박사과정 4학기내에 수료 가능함.
 - * 석사과정 법, 경영, 화, 생물, 가정학과는 서울,경주캠퍼스 공동개설된 학과임.
 - * 석·박사과정 공히 학부 및 석사과정 출신학과에 관계없이 전학과 응시가능 (한외, 의, 학, 간호학과는 동일 학과에 한하며, 다만 간호학과는 3년제 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지원 가능)
 - * 연극영화과 영화화 전공은 이론편임.

- 지원자격
 1. 국내·외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 취득자 또는 2004년 2월 취득예정자.
 2.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형일시 및 방법 : 2003. 10. 18(토) 10:00부터, 서류심사 및 구술(면접)시험

■ 전형일정
 1. 원서교부 : 2003. 9. 26.(금) ~ 10. 8.(수), 인터넷 홈페이지(www.dongguk.edu/gs) 가. 교부장소 : 서울은 학술관 3층 대학원 교학부, 경주는 진흥관 1층 사회과학 대학원 교학부
 * 본교 홈페이지(www.dongguk.edu/gs)에서 원서를 다운(Down)받아 지원할 수 있음.

2. 원서접수
 가. 인터넷 접수 : 2003. 9. 26.(금) ~ 10. 7(화) 17:00시 까지
 나. 방문 접수 : 2003. 9. 30 (화) ~ 10. 8 (수) 17:00시 까지
 3. 전형일자 : 2003. 10. 18.(토)
 4. 합격자 발표 : 2003. 10. 30.(목) 14:00 예정
 (각 대학원 게시판 및 홈페이지 : www.dongguk.edu/gs 공고)

■ 제출서류
 입학원서(사진 3매),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업계획서, 평가기초자료, 추천서,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 주민등록초본, 승직확인서(조계종 재직 승려에 한함)
 * 인터넷 접수는 입학원서, 학업계획서, 평가기초자료는 필수 입력사항이며, 그 외 서류는 전형 당일 구술시험 1시간 전에 진행위원장(조교)에게 제출한 후 수험표를 교부받기 바람.

■ 기타
 1. 외국인 입학생은 등록금의 50% 장학금 지급
 2. 각종 교외장학, 조교장학(연구 및 행정조교), 총장장학, 고시장학, 공인회계사장학 등 다수가 있음.
 3.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교수에게 매학기 교육요금을 배정하고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참조 (www.dongguk.edu/gs)
 * 동국대학교 대학원 교학부 TEL. 02-2260-3094~5, 3116 FAX. 02-2260-3685

2003학년도 교육여건 설문조사 기간연장 및 경품행사안내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의 교육여건에 대한 재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파악하여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대학의 교육정책에 참고하기 위하여 교육여건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설문조사 연장 기간 : 2003. 10. 5(월)까지
2. 설문 내용
 - 가. 학사제도
 - 나. 교육과정 및 학업이수
 - 다. 복지 및 행정서비스
 - 라. 교육 및 지원시설
 - 마. 대학발전 정책
3. 참여 방법 : 본교 홈페이지 우측하단 교육여건설문 클릭
4. 경품 행사
 - 가. 경품지급 대상자 : 교육여건설문 온라인 조사 기간 중 모든 설문에 응답한 재학생 중 추첨을 통해 선발
 - 나. 경품 당첨자 선발 방법 및 시상내역
 - (1) 명진상 : MP3 1개씩 3명
 - 선발방법 : 설문 5개 영역에 모두 응답한 재학생 중 추첨을 통해 선발
 - (2) 해화상 : 문화상품권 1만원권 2매씩 101명
 - 선발방법 : 설문 5개 영역에 모두 응답한 재학생 중 각각 1,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0번째 응답한 학생
 - (3) 동국상 : 학교 홍보용 고급 우산 10명
 - 선발방법 : 설문 5개 영역에 모두 응답한 재학생 중 추첨을 통해 선발
 - 다. 당첨자 추첨 및 발표
 - (1) 당첨자 추첨
 - 추첨일 : 2003. 10. 9(목)이전
 - 추첨위원 : 교무처장, 학사지원실장 등
 - (2) 당첨자 발표
 - 발표일 : 2003. 10. 16(목)이전
 - 발표장소 : 학교 홈페이지

교 무 처

사회 속으로

본교 4학년 취업준비생의 하루

적성에 맞는 '좁은 문' 통과 위해 취업설명회 등 취업정보 얻기에 총력



①, ② 연세대학교에서 진행된 '한국수출입은행' 취업설명회에 참석해 설명을 듣고있는 이지명 양.

③ 이 양이 인터넷 입사지원서 접수를 위해 이력서를 점검하고있다.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대학이 취업을 향한 통과문 좁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요즘, "대학에 들어가면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은 어쩌면 옛날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취업난의 현실을 1학년이라고 해서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에 가야한다는 압박과 넘어야 할 고등학교 시절을 지내왔다면 대학 시절은 취업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4학년이 되면 더 이상 '유예기간'이 없다는 압박감까지 겹쳐 학생들을 괴롭힌다. 이는 본교의 학생들이라 해서 결코 예외가 아닐 것이다.

"낮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잠도 자야 하고....., 더욱 많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새벽 2시쯤에 잠이 들어 아침 6시쯤 일어나, 비교적 긴 하루를 보내는 편이지만 시간이 더욱 많았으면 좋겠다는 이지명(정보관리4) 양.

그는 지난 학기 쌍용정보통신에 인터넷으로 채용됐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 다른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동문서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 양이 결코 회사에 쉽게 채용됐던 것은 아니다. 경영학 복수전공을 하고 상위권 학점을 유지했으며, 이른 아침 토익 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공간 시간 틀림을 공부한 끝에 800점 후반대의 토익점수를 받았다. 또한 인터넷 정보검색사 자격증, 데이터베이스 관리 자격증인 OCP 등 3개의 자격증을 땀으로 지난해에는 '정부지원 IT해외연수'로 캐나다에 다녀오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학기 지원한 20여 개 기업 중 합격 통보가 온 곳은 쌍용정보통신 한 곳뿐. 이러한 노력 속에 취직된 회사에서 그가 다시

'취업준비생'으로 돌아온 것은 회사가 그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취업이 쉽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근무해야할 직장을 선택하는 것인 만큼 나와 잘 맞는 직장을 택하려 한다"는 이 양은 이제 토익점수를 900점 이상으로 올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전, 집을 나선 그의 발걸음은 연세대로 향했다. 얼마 전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둘러보던 중 '한국수출입은행' 취업설명회에 대한 정보를 얻었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진행되는 취업설명회의 경우 해당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동문이 직접 찾아와 자신의 경험담을 말해주고 필기시험이나 면접 등에 대한 전략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양은 요즘 본교 취업지원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취업관련 홈페이지에 자주 접속해 정보를 얻어 이러한 취업설명회에 가능한 많이 참석하려고 노력중이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둘러보는 것도 잊지 않는다. 해마다 취업을 하려는 사람은 증가하고 기업체의 채용은 일정하기 때문에 각 기업 채용일정 등의 취업 정보를 많이 확보한 사람이 취업에 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채용설명회에 참석한 후, 이 양은 점심식사를 마치고 본교 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에 자리를 잡았다.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한국은행의 인터넷 입사지원 마감일이 오늘 오후 6

시까지기 때문이다. 취업을 향한 첫걸음에 해당하는 서류전형에 포함되는 자기소개서의 경우 각 기업체가 요구하는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따로 준비해야한다. 또한 자기소개서가 자기 PR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여서 취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때문에 그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며 본교 취업지원팀에 문의하는 한편 학과 선배, 부모님 등 많은 사람들과 상의를 거쳤다.

"취업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의 어떤 회원은 나보다 평점과 토익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합격한 서류전형에서 떨어졌다. 일부 사람들은 이를 자기소개서 작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파악한다"는 이 양은 각 기업체의 인터넷 원서 접수 최종마감시간 직전까지 자기소개서를 읽고 또 읽으며 작은 실수라도 발견되면 수정·접수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채용 담당자들에게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금만 더 빨리 취업준비를 집중적으로 했었다면 지금보다 한결 발전된 상태에서 취업에 도전할 수 있었을 텐데, 나 자신에 대해 좀 더 일찍 알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이지명 양. 그가 그동안 해왔던 많은 노력이 하루 빨리 결실을 맺길 바란다.

김진성 기자
yeam@dongguk.edu



첫째, 각 기업에서 전문성 있는 인력을 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신의 취업분야를 업종에서 직종으로, 또한 직무로 압축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뒤 자신을 객관적으로 분석 파악해, 사회교육 기관 등 각종 정보채널을 활용해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 결정되면 그 기업의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채용계획을 확인해 보거나 취업전문기관이나 선배들의 조언을 구해 보는 것이 좋다. 또한 채용박람회도 찾아가 취업기회를 활용해 보는 방법도 있다. 구직자들의 모임을 만들어 몇 개의 인터넷 취업사이트나 카페를 정해 다른 사람들과의 정보를 공유해 볼 필요도 있다.

셋째, 학점관리나 외국어 및 컴퓨터 능력 등은 이제 기본이다. 이밖에 기업을 감동 시킬만한 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신력 있는 적성검사 기관에서 개인적으로 적성검사를 받거나, 입사용 건강 진단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다. 또한 인턴 사원에 참여하거나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수료해 준비된 인재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넷째, 학생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돈의 액수보다는 졸업한 뒤 하고자 하는 업무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면접을 볼 때에는 무엇보다도 자신감 있고 그 직업에 관해 의욕이 넘치는 모습이 중요하다.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긴장해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밝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지원자들에게 더욱 호감이 간다. 또한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에 취직된 뒤, 열의 있게 배우는 자세를 갖겠다는 모습이 필요하다.

여섯째, 취업 실패를 대비해서 눈높이를 낮춘 2차 목표회사 또한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유용하다.

(도움: 삼성SDS 정우진 인사과장, 롯데제과 함석희 인사과장, 한국손슨다서비스 최지연 인사과장, 대학과 미래 잠재성 대표이사)

<은>

bob83@dongguk.edu

이색직업!

남과는 다른 곳을 본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모 기업인의 말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위에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났다.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색 직업에 눈을 돌려 난국을 헤쳐 나가보는 것은 어떨까.

▲게임 베타테스터 = 보통 게임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알파 버전, 베타 버전 그리고 마스터 버전 순서의 3가지 버전이 있다. 스테이지나 미션이 구체적으로 설정됐지만

완성도가 떨어지는 상태인 베타버전일 때 테스트를 한 후, 여기서 나오는 버그를 개발사에 알려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베타테스터. 베타테스터가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한 채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게임의 성공적인 발매에 그들의 책임은 막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임의 특성상 많은 인원의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수시로 모집하기도 하지만 게임 개발사에는 게임이 만들어질 때부터 테스트에 참여하고 운영까지 담당하는 베타테스터들이 상주하고 있다.

베타테스터로 취직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개발 이력, 동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컴퓨터의 설치, 조립, 데이터베이스구축, 웹 관리 등과 같은 컴퓨터 전반에 걸친 지식이 필요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경력이 있으면 유리하다.

▲폐업 컨설턴트 = 외환위기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사회는 불경기에 허덕이고 있다. 하지만 우는 사람이 있으면 웃는 사람도 있는 법. 모두가 힘들어 할 때 일거리가 늘어나는 직업이 있으니 바로 폐업 컨설턴트이다. 이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발휘해 적절하게 자신을 매각해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창업을 앞선하는 일을 한다.

폐업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컨설턴트 회사에 들어가서 경험을 쌓아야한다. 여러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뒤에 회사 내에서 전문적인 폐업 컨설턴트로 활동하거나 프리랜서로 독립하는 것이다. 컨설턴트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나 창업 컨설팅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며 면접 시에는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사람들과의 상담에서 일이 시작되고 정보수집 능력이 필수적인 만큼 컨설턴트는 사람들과의 관계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입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능력을 인정받은 경력 3년 차 폐업컨설턴트의 월수입은 천만원선이다.

<회>

gazzababo@dongguk.edu

소나기

김두관 행정부 장관 해임안 이렇게 본다.



△한나라당! 국민의 복으로 겨우 하는 생각이란 것이...

△불가피= 김대중 식 하향 평준화 정책.(박정희를 능가한다.) 적어도 동국대 수준 이상은 되어야 했다. (한국의 대학 수준을 저하시키려는 양김의 악랄한 책동은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의 그것을 능가하고 있다. 동국인이여, 깨어나라.)

△조금 더 신중했 행동을 취했어야 했다. 특히 위도 핵 폐기 처리장 건설 문제는 많은 주민들의 사활이 걸린 사안인 만큼 그 중요성을 명심한 채로 행동하는 것이 옳았다.

△김두관 행정부 장관만이 잘못이 아니다. 분명히 정부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위도 문제는 김두관 전 행정부 장관의 일 처리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해임안은 조금더 인내심을 가지고 처리했어야 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말을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정치권이 가을 하늘처럼 맑아졌으면 한다는 그의 바람이 쓸쓸하다.

△누군지 모른다.

△김두관이 낚시온지?

△한 나라 장관이란 사람이 어찌 말을 그리 막 하시오.

△관뒀야지

△눈으로 본다.

△잘했지 뭐.

△흥수났다. 수산부 장관, 농림부 장관 꼴라라.

△대략 좋지 않다.

△너무 성급하다. 축구 감독도 아니고...

△미안합니다. 깨워서요.

△매미나 잡아라.

△김행자가 무슨 잘못이나.

△잘했오. 우리나라의 절실한 현 상태오.

늘상 그래오지 않았오.

△누구나 마찬가지로 때문에 상관없다.

△정치는 변하지 않는다.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 또는 사진을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TEL : 2260-3491 · 2
FAX : 2279-1270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동약광장

축하합니다

△지원누나, 예뻐진 것 축하해요.

△성민아, 생일 축하해.

△운재 생일 축하. -전기자 일동

△태범아 희규야 세정 맨, 2층에서 밥 꼭 먹으세요.

△9.23일 연주 생일 축하.

△유미아 300일 축하해.

△청규와 미경이 100일을 축하합니다.(9.28)

△홍순일, 득남을 축하한다. -02일동

△김세민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한상장 선배 나 경영학 연습 책 줘!

△태희 오빠, 회계사 합격한 것을 축하해요.

△한국 방송 아카데미 -일동

△회계학과 02 안석 선배님 생일 축하해요.

△수학교육과 03학번 이지희! 생일 축하해.

△9월 18일 애린아 정말 생일 안 축하해.

△희창형 휴가 나온 거 축하해요.

△9월 6일 국교 03 민욱 생일 축하해.

△조희상 운전면허 취득 축하. 5Kg감량 성공 기원!

△한장우 선배님 생신 축하합니다.

△안석연니 생일 축하해요.

△9.19 전경용 생일 축하해. 생일 빵 좀 맞자.

△자유의 몸이 된 정치수배자들 축하합니다. 더 힘내서! -동팔랑

△우석선배, 늦었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주희 언니, 정석 오빠 들꽃 공연 멋졌어요.

△선희야, 생일 축하해~

△늦었지만, 지원아 스무번째 생일 축하해.

△한홍련 수배자 여러분, 수배해제 되신 거 축하드려요.

△효진아, 영환아. 늦었지만 백일 진짜 축하해.

△유리아, 복학한 것 축하해.

열심히 하시다

△명철아 공부하자.

△진유야 미국문화의 이해 퀴즈 공부 열심히 하렴 역시 개츠비는 위대하구나.

△오퍼스 마이너리그 철호, 서연, 재희 화이팅

-OUPS 일동

△국어교육 지원아 모의 토익 잘 바.

△경야야 열심히 하자. 힘내 -상민

△예쁜 국교과 아이들 학과에 애정을 좀 가집시다.

△남영아 사랑 열심히 하고 학점 좀 올려!

△더불어 노래하는 세상 열심히 합시다. 봉구야 열심히 살자. -도치

△TUM학술제 장금 -03 이뿐이들

△희열이 오빠, 말은 바 최선을 다해주세요.

△세진야, 우리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노려보자.

△과외 열심히 하고, 과외비 받으면 한 톨 내라. -ji

△현주 오빠, 이번 영어 회화 수업은 열심히

들어서 패스하자.

△웅렬야, 대영아 야구 열심히 해서 꼭 선발 선수 돼야돼.

△기훈이형 수업 시간에 제발 복시다.

-유령 출석 100% 황

수고하셨습니다

△법웅대 회원여러분 정기총회 치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J.Kim

△희곡복과 연극 공연팀 고생하셨습니다. -R.M

△시인교 삼돌이의 사랑

△영상이 100일 축하해, 앞으로도 오래가 깨지지 말고. -kcc일동

△하영아 학교 생활 힘들었지? 군대에서 휴식기를 가져라 -해군

△문학가행 잘 다녀오세요.

△이화, 동선 지속적인 도서관 생활 기대할께. 승리해라!

△귀성길 귀환버스 운영해주신 학복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밤, 학교를 지키시는 수위아저씨 감사합니다.

△카리스마 홈, 어울리지 않게 하녀역할 하나 수고했다.

△심을 열렁 나와라.

△종규야! 혼자 일하느라 수고한다.

그리고...

△미경이 불쌍해. 소개팅 대박. -미당

△서찬언니, 행복하세요. -Beach

△그녀가 좋다.

△17-19 수강신청 최종 확인.

△경영학과 문석 오빠, 축하해요. 예쁘게 잘 열심히 열정으로 사귀세요. 나두 남친이 있으면 좋겠다. 왓 여기 있네.

△신방과 99학번 "심율"전역을 축하해.

△故 이서찬 학우의 명복을 빕니다. -이서찬을 기억하는 사람들

△국어교육과 최고다.

△배고파요.

△요즘 너무 감기가 유행인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세요.

△B. 내가 너무 못 챙겨주는 것 같아 항상 미안하다. 힘내라

△WUFJ. 엘리트의 지위를 빨리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논병. 우리들의 직업이다. 조심 조심 또 조심.

△요즘 사회적으로 여자 연예인들 너무들 하신 것 같아요. 쏘웃

△지희야, 귀 뚫은 것 축하해. 예뻐 죽겠어.

△현우, 잘 생겼다.

△정선씨, 사랑해요.

△다들 수업 열심히 들음시다.

△성민이의 소개팅이 잘 됐으면 좋겠다.



개방은 늦춰졌을 뿐이다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넘긴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칸쿤 각료회의에서도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된 농업협상 의제는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하였다. 각료회의의 결렬의 표면적인 이유는 싱가포르 이수(무역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나 이러한 협상 일정은 각료회의의 결렬로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협상 사안인 세부원칙을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농업협상 그룹 의장(하빈슨)은 일정대로 2003년 3월까지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9월에 개최된 칸쿤 각료회의에서

석을 위한 시간 벌기가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EU 각료회의를 앞두고 타협안을 제출하여 농업분야 협상이 이들 두 나라에 의해 이끌어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칸쿤 각료회의에서 이들 두 나라 이외에 개발도상국을 대표하는 G-22, 농산물 수입국들의 모임인 G-10 등이 등장하여 협상의 축이 다각화되었다. G-22은 브라질, 인도, 중국, 아르헨티나 등이 뭉친 그룹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그룹이며, G-10은 일본, 한국, 스위스 등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의 급격한 개방에 일관되게 반대해 온

논단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그들이다.

이번 각료회의의 결렬로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개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장개방 일정이 어느 정도 늦춰진 것일 뿐이다. WTO 사무국은 12월 15일 이전까지 고위급 일반이사회를 소집하게 될 것이며, 농업협상은 10월과 11월에 개최될 농업위원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조정 과정을 거쳐 내년 초 홍콩에서 개최될 WTO 각료회의에서 다시 한번 협상 타결을 시도하게 될 전망이다.

농업분야 협상력 키워야

우리나라가 DDA 농업협상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문제와 쌀 시장개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최선의 협상 대안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쌀 등 중요한 몇 개 품목을 시장개방 폭이 최소화되는 '특별품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협상 기간에 우리가 원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입장이 비슷한 국가들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협상력을 키워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동국해외탐방장학 수기

값진 추억과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된 좋은 경험

유럽의 선진 리모델링을 보고 느끼고 올 수 있다는 기대와 말로만 들던 유럽여행의 기회를 갖게 된 우리는 부폰 설레임을 안고 7월 20일 드디어 15일간의 유럽 원정길에 오르게 됐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기대는 첫 탐방대상이었던 베를린 공대부터 여지없이 무너졌다. 베를린 공대에서 만난 박사님 두 분은 계획에 걸쳐 우리가 놓치고 있던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했던 우리로서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박사님들과의 이틀에 걸친 토론과 인터뷰는 우리에게 앞으로의 탐방방향을 설정하고 좀 더 거시적으로 우리의 주제를 접근 할 수 있게 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돌아본 라이네 쾰데, vooenburg, 라데팡스에서 우리는 우리가 목표로 했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처음 가는 유럽여행이고 또한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그들이기에 여러 사회적, 문화적으로 선진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많은 기대를 했다. 그러나 기대가 컸던 탓인지 탐방 중 이곳저곳에서 실망스러운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다. 물론 좋은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다.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파리나 베를린, 암스테르담과 같은 대도시보다는 인구 5만의 소도시 라이네 쾰데였다. 워낙 시골 도시라 숙소와 교통편 등을 걱정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우리의 걱정이 기우였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호텔 웨이터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친절을 베풀었고 시청 직원들은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온 우리를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 줬다. 도시는 깨끗했고 사람들의 삶에는 여유가 보였다. 우리는 라이네 쾰데를 보면서 그들의 저력이 이러한 작은 시골마을에서 나오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해외탐방은 많은 도움과 행운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 덕분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고 처음 우리가 목표로 했던 대학시절의 값진 추억과 진지한 고민이라는 두 가지 모두 어느 정도 달성한 것 같아 뿌듯하다. 이번 해외탐방은 분명 우리 스스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된 좋은 경험이었다.

이계혁 (공과대 건축4)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 (9/22)	양지탕 (1500) 만두탕수 (1500) 두부김치 (1500)	순두부찌개 (1300) 제육콩나물볶음 (1500) 오징어떡볶이 (1500)	된장찌개 (3200) 아구찜 (3500)
화 (9/23)	부대찌개 (1500) 떡볶고기 (1800) 오징어비빔밥 (1500)	설렁탕 (1500) 낙지볶음 (1800) 소고기볶음밥 (1500)	된장찌개 (3000) 삼치테리야끼구이 (3200)
수 (9/24)	닭곰탕 (1500) 모듬볶음밥 (1500) 피자돈가스 (1500)	콩나물국밥 (1500) 순살돈가스 (1500) 골뱅이소면무침 (1500)	된장찌개 (3000) 닭볶음탕 (3200)
목 (9/25)	소고기국밥 (1500) 돈육장조림 (1800) 간짜장 (1500)	닭조림백반 (1500) 소고기해쉬라이스 (1500) 시골우거지탕 (1500)	된장찌개 (3000) 버섯잡채밥 (3000)
금 (9/26)	아육국백반 (1500) 소고기해쉬라이스 (1500) 회덮밥 (1500)	떡만두국 (1500) 탕수육 (1500) 오우라이스 (1500)	된장찌개 (3000) 코다리무조림 (3200)

금주의 추천메뉴

피자돈가스(동국관 수요일 석식)

돈가스안에 모자렐라치즈를 넣어 기름에 튀겨낸 바삭함과 쫄득한 치즈 질감이 어우러져 치즈를 좋아하는 여학생들의 선호메뉴중 하나이다. 양송이와 양파를 넣어 만든 소스는 그 맛이 일품이라 부족한 돈가스 양을 넉넉하게 해주고 가니쉬로 제공되는 샐러드는 부족하지 쉬운 비타민섭취와 느끼할 수 있는 튀김음식을 한층 부드럽게 해준다. 유진영 (동국관영양사)

달하나 천강에

변하지 않는 진정한 인재의 조건



성용경 이과대 화학과 교수

21세기, 새로운 세기가 펼쳐지고 정보 문화가 싹트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모두들 '21세기형 인재'가 되겠다고 난다. 그러나 진정한 인재의 조건은 변하지 않는 것들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이 방향을 잃지 않고 진정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 즉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인재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우리는 '참사람'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 모든 이들에게 항상 성공과 행복만이 있을 수는 없다. 때로는 실패도 있고 불행도 겹쳐 절망에 빠지고 지쳐 넘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럴 때일수록 참사람, 즉 인격수양이 잘 돼있으면 넘어지거나 쓰러지더라도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역사를 통해봐도 성공한 인물들 중 실패와 좌절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지 않은가. 모두 역경을 딛고 일어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인물이 된 것

이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성공한 사람들의 지난 역사 뒤에는 많은 역경과 경험들이 있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자기 적성에 맞고 취향에 맞는 일들을 찾아 평생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짧은 날에 자신의 적성에 맞아 한 평생 즐겁게 할 수 있는 전공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허송세월로 시간을 보내게 될 뿐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나 긍지도 얻지 못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유년기에는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므로 부모님이나 선생님, 성공한 선배들과의 부단한 대화를 통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여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셋째로 창의적인 일과 창조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류역사상에서 그래도 역사에 오래 기록되고, 큰 공헌

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아인슈타인이 나 에디슨과 같은 과학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와 같은 음악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같은 미술가, 노벨이나 록펠러 같은 기업가 등이다. 이들은 모두 창의적이며 창조적인 일을 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비록 이들과 같은 큰 일은 아니더라도 무한한 표현방법을 활용하여 무엇이든 자기만의 뜻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요즘은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드러난 작품들을 곧잘 만들어내지 않는다. 넷째로 상호 협동하는 정신이 필요할 것이다. 자기 자신 혼자 하는 일보다는 서로 마음과 마음을 합쳐 더 좋은 뜻을 세워 이뤄낸 일이 더욱 보람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것이 21세기 정보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 아닐까 싶다.



비개인 가을하늘 ... 태풍 '매미'의 시름도 이 가을 하늘과 같이 맑게 개이길 바란다. 정기훈 (경영대 정보관리4)

명분 없는 전쟁에 동참하지 말자

미국의 이라크전쟁이 석유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명분없는 전쟁이었음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이라크에 추가파병이라는 문제가 나타났다. 반전평화의 목소리가 전세계적으로 만발한 가운데 추가파병에 대한 문제가 대두한 것이다. 전투병 1만 여 명의 규모의 파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전쟁명분으로 내세운 대량살상무기 문제와 알카에다 연계설도 거짓으로 확인되면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위기에 빠진 미국이 동맹국들의 참전을 통해 불리해진 전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파병에 대해서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는 국익이나 북핵문제를 들먹이며 파병에 대

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전투병 파병에 대한 여론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가운데 한 나라당은 파병지지를 외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공식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파병을 결정했다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어떠한 전쟁이 사람의 목숨 앞에서 정당화 될 수 있는가. 또한 이라크 민중의 피와 맞바꾼 국익은 과연 몇몇할 수 있을까. 이라크 다음은 한반도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오가고 있다. 과연 우리는 이라크 같은 현실이 왔을 때 다른 나라의 전쟁파병에 대해서 몇몇할 수 있을까. 전 세계적 공존을 위해서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신용화 (생지대 생명자원산업융합4)

감사하는 삶을 살자

“요새 왜 이렇게 비가 왔다 안 왔다 해? 한번 오면 정말 많이 온다!” 흘러가는 듯 친구들 사이에서 오고 간 대화였다. 그냥 오는 비라니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아침 출근 땀으로 지하철 흔들림에 이리저리 흔들리다 무심코 올려다 본 TV모니터에서 태풍 '매미'가 기습을 부리고 있다는 방송을 보게 되었다. 그 후 신문에서도 TV 뉴스에서도 수재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태풍에 휩쓸려 간 사람들에 대해서 쉴 새 없이 보도하고 있었다. 태풍이 할퀴고 간 자리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텅 빈 집터에서 망연 자살한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의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음에 대성통곡하는 사람들, 나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은 그저 모니터 안에 존재 하는 사람들이었다. 난 공강 시간에 확보실 커다란 창 밖으로 쏟아 붓는 비를 멍하니 보면서 '뭣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더라. 또 강의 실을 옮길 때 바다 왜 이렇게 비가 오냐며 바지가 젖는다고 바람에 우산 가누기가 힘들다고 투덜대기도 했었다. 비가 와서 학교 가기 귀찮다고 농장을 부리기도 했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아픔은 커녕 작은 불편함에 투덜대고 있었다. 내가 겪은 일이 아니고선 언제부턴가 주위의 아픔에 무뎠어져 버렸다. 아픔뿐만이 아니라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눈과 귀를 막고 나는 나만 아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배부른 소리일지 모르지만 좀더 주위의 어려움에 눈을 돌리고 작은 손길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정새미 (사과대1)

수배해제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수배해제로 3년만에 고향에서 추석을 맞이한 주인공 군의 가족사진.

3년만의 귀향이었다. 밤을 세워 차를 달리면 달을 수 있는 거리를 3년을 예뻐 달려가는 귀향길이였다. 꿈에도 그리던 부모님을 만난다는, 자라온 세월이 묻어있는 고향집에 간다는 설레임이 지나쳐 곱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두려움도 있었다. 3년의 세월이 나의 의지와는 반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세월의 흐름을 부모님 모습에서 봐야만 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우리 진일이 맞나?”며 비선발로 달려 나오시는 어머니를 껴안으며 고향집에서의 한가위 명절은 시작되었다. 참으로 감격스러웠다. 그리움으로 더 크게 다가왔던 부모님과의 만남이 감격스러웠고 역시나 진보한다는 진리 속에서 있음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다. 지난 7년간의 싸움이었다. 김영삼 정권의 사상 초유의 마녀사냥으로 시작된 한총련 이적규정. 그것은 학생운동을 볼모로 분단 조국의 현실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테러였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우리 대학의 학문을 뿌리부터 억압하는 것이었다. 당연히 그 안에는 부모, 자식간의 천륜도 보장될 수 없었고 개인의 꿈은 물

론 목숨마저 안전할 수 없었다. 하기에 사회가 발전할수록, 민주주의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아질수록 한총련 합법화는 그 잣대, 최우선 과제가 되었던 것이다. 많은 선배들이 종이 한 장의 양심을 버리지 않고 싸워온 덕분에, 반드시 진실은 가려지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싸워온 덕분에 오늘의 수배해제는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반쪽짜리 감격이었다. 마냥 해해 취해있을 수만은 없었다. 아직도 뚝고 있는 동료들이 많이 있고 같은 동료들도 있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국가보안법이 짙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지하철을 타고 등·하교 하는 정상적인 일상을 찾아가는 나의 삶. 자유로운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해야 할 몫이 더 많아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 이리라. 따라서 얼마 남지 않은 대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내 삶은 더욱 치열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관심과 무관심을 떠나 동학우리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큰 버팀목이 되어온 동학 학우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진완 (사범대 국교4)

본 칼럼은 우리 사회, 우리 대학에 대한 대학생들의 깊이 있는 생각을 담아내기 위해 신설되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기대한다. 편집자



세상읽기 김선영 사과대 사회3

당신의 특권을 아십니까

필자가 처음 학생논단을 장식하게 됐다. 기쁘기도 했고, 부담도 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쓸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다. 현재 사회학과의 큰 문제인 K교수 성추행 사건부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라크 파병이나 WTO와 관련해 세계화문제까지 많은 문제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학생 논단이 처음이고, 대학생들이 쓰고 읽는 공간인 만큼 우리 대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써 보려 한다. 80년대까지 한국의 대학생들은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 많은 시간을 낭만적인 캠퍼스가 아닌 시위 현장에서 보내곤 했다. 술자리에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이 사회에 대한 고민들로 가득했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학, 대학생은 어떠한가. 대학은 취업으로 가는 발판으로 여겨지고, 대부분의 학생은 자신의 앞만 보고 달려가는 바람에 자신의 주위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다. 학생운동은 자신과는 다른 학생들 몇몇이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학생들의 관심·참여도는 몇 년 전과 비교해보아도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가 많이 변해 이제는 사회의 제도도 많이 줄어들었고, 취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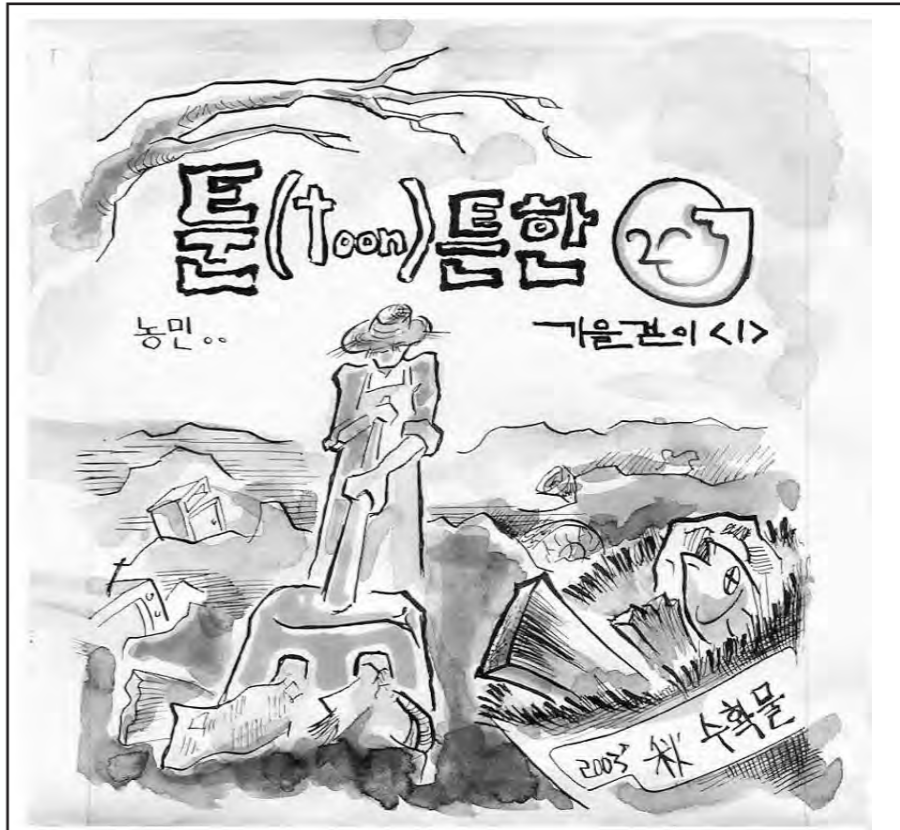
지금 대학생은 대부분 앞만 보며 달려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대한 고민이야말로 대학생의 진정한 의무와 특권이 아닐까?

문은 갈수록 좁아져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대학생이다. 나는 대학생이라는 신분은 참 묘하면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린 고등학교 때까지 주입식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키워나가고 표현하는 것과는 멀어져 있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다양한 가치관·사상이 공존하며,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대학생은 성인이지만 아직 학생이기도 하다. 사회에 나갔을 때보다 조금 더 자유롭고 여유롭다. 자신의 생존을 둘러싼 많은 문제들과 압박을 아직은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대학생은 자신의 주변, 즉 내가 살고 있는 사회를 들여다보고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속해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대한 고민은 대학생의 의무이자 특권이 아닌가 생각한다.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맘껏 논쟁하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 공간에서 우리 대학생들의 사회에 대한 치열한 고민들이 계속될 것이다. 글을 쓰는 대학생의 고민을 글을 읽는 대학생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분석·해설기사 부족 아쉬워 특별기고, 시의성 부족 면 성격에도 부합 못해

지난호 동대신문은 교육과정 개편안, 장학기금 지원계획, 신입교수회장 인터뷰, e-class 중단 등 개강한 후에 학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단순보도 기사가 주를 이뤘다. 즉, 학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이슈의 상황을 분석,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학내에서 나타난 일의 알리는 데 그쳤다는 것이 아쉽다. 하지만 보도면에서 장기적인 발전기금 모금의 홍보계획의 필요성과 수시 합격생에 대한 교육문제에 대한 기사는 독자들이 간과할 수 있는 사안을 잘 다루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동양로는 수강신청기간에 나타난 학생들의 모습을 통해 학과별로 상이한 모습을 잘 표현하였다. 사회면의 경우 '한총련 합법화 거리 토론회'를 전면에서 걸쳐 보도하고 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새로운 토론회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은 좋았지만, 홍보부족으로 일반 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하였다는 점이 아쉽다. 그리고 기사에도 나타난 것처럼 행사가 그렇게 관심을 못 끌었음에도 전면에서 걸쳐 '거리 토론회'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를 요약하고,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시각적 차이가 있는 사람들의 글도 함께 실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학술면은 '특별기고'가 과연 면의 성격에 부합되는 것인지 의심스러웠으며, 시의성도 떨어지는 글이었다. 즉 책과 사상이 이야기 등과 함께 실려 있는 '기고'는 학술적이거나 시시적인 이슈에 관한 것이므로 사회면이나 여론면에 실려야 하는 것이고, 시의성의 측면에서도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무리가 있는 주제라 생각한다. 문화면의 '누드'에 관한 기사는 요즘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누드의 사회적 의미와 흐름을 알 수 있는 글이었다. 우혜진 (사과대 신빙3)



‘온라인 음악유통과 시장활성화 방안’ 토론회 중계

“불법 안돼” VS “상생하자”

계속된 소송으로 갈등을 빚어온 빅스뮤직 논쟁과 관련한 공론장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지난 16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열린 ‘온라인 음악유통과 시장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그것이다. 문화개혁시민연대(이하 문화연대)의 주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철예한 대립양상을 보이던 음반사, 음반제작자협회(이하 음제작), 빅스뮤직 관계자 외에도 변호사, 대중음악평론가 등 다양한 패널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초반부터 온라인 음악시장 전반보다는 빅스뮤직 논쟁에 초점이 맞춰졌다. 첫 발제를 맡은 함용일 YMB서울음반사 대표는 “온라인 음악시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불법서비스 차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음반산업과 관련한 문화관광부의 정책 실행도 함께 꼬집었다.

저작권법과 관련한 법적 문제와 관련해 문건영 변호사는 “새로운 문화현상을 현행법의 잣대로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상이하게 여겨지던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현실이 반영되도록 법을 해석·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변호사는 문화산업과 관련한 법률이 다수 존재하나 선연적인 내용에 그저 오히려 저작물의 자유 이용을 막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한 박준흥 대중음악개혁위원회 연대모임 정책위원은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야함을 강조했다.

한편 유성우 빅스뮤직 이사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방송과 같은 개념이므로 방송사가 음반제작자에게 지



사실상 결렬된 온라인 음악 유통과 시장 활성화 방안 토론회.

불하는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며 최근 거론되는 수수료 기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유 이사는 현 저작권법은 권리자의 영향력만 과도하게 인정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발제가 끝나고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되자 각 패널들의 대립각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신타클 안 할 경우 일부 음반사의 음원을 사전승인 하지 않는 음제작의 방침에 대한 음반사의 비판에, 백강 음제작 사무총장은 “일부 음반사가 음원을 특정 서비스 업체에만 독점 공급하겠다는 움직임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음악시장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에 관해 “음반사측이 마음의 문을 열고 상생방향을 모색하자”는 빅스뮤직의 주장에 JYP엔터테인먼트 정용 팀장은 “스트

리밍 서비스가 고도로 발전하면 음반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대응했다. 정 팀장은 음반사들도 음반시장이 음원시장으로 바뀌는 패러다임에 따라 모바일·게임 등 신규 비즈니스를 모색중이라며 이는 불법 사이트가 배제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음반시장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는 “방송횟수가 많아 인기 순위는 높은 음반이 판매량은 매우 저조한 경우가 많으므로 방송횟수 개념을 없애야 한다”는 대중음악 평론가 성우진 씨의 제안 외에도 전국 지원 배제, 30초 듣기 서비스 제공 등이 제시됐지만 여전히 대립 구도만 보인 채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각 사안마다 각 업계의 입장이 갈렸지만 현 음반시장에 대한 대안이 시급히 요구됨에는 이견이 없었다. 그럼에도 온라인 시장 유통구조에 대한 첫 협상 테이블에서 일련의 의견 조율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점이다. 또한 ‘뒷집 지고’ 있는 문화관광부의 불참도 아쉽다.

“P2P가 무료인데 스트리밍 서비스를 유료화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한 참석자의 말처럼 이 논쟁은 대중음악계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좀 더 총체적인 논의가 가능한 자리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자리에서는 업계들의 ‘나무’ 키우기가 아닌 음악시장 활성화라는 ‘숲’ 살리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우리 고민' 답은 축제 한마당

들풀 정기공연 열려 ... 의식 반영한 공연 늘어야

학내 문제에 관한 공개 토론회 자리를 마련한다면 참여하는 학생수가 얼마나 될까. 아마도 무관심하게 지나쳐 가는 학생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딱딱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흥겨운 춤과 노래로 풀어낸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야간강좌 총학생회 총재 ‘들풀’은 지난 17일 해화관 앞에서 ‘제2회 정기공연’을 진행했다. 이번 공연은 학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야간강좌 폐지’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문화 공연 속에 담아내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다.

지난 공연과는 다르게 이번 행사는 야간강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공연 주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주제로 구성했다.

진행 방식은 연극형식에 춤과 노래를 결합해 관객들로 하여금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했다. 때문에 공연이 진행되는 내내 배우와 관객의 공감대 형성이 쉬워 보는 재미를 더했다. 특히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져 곤란을 겪는 야간강좌 학생들의 모습을 표현한 장면은 많은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야간강좌 학생들이 평소 갖고 있던 불만을 솔직한 가사로 표현한 랩 공연은 공연의 열기를 더했다.

이와 관련해 들풀 회장 채정석(세무회계3) 군은 “먼 일로만 여겨지던 학내 고민거리들을 학생들이 재인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몇가지 아쉬운 점도 보였다. 진행자들의 준비 소홀로 인해 시작 시간이 늦어지고 공연 중간의 공백이 그것이다. 또한 극과 노래의 연결이 모호해 관객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던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우리의 공연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의 중요한 주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해요”라고 말하는 들풀의 한 회원.

들풀 회원들의 이러한 치열한 열정을 통해 학내 문제에 대한 ‘고민이 담긴’ 공연이 더욱 늘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
bob83@dongguk.edu



문화일기

내 생애 최고의 ○○ 영화 - 냉철한 시선에 담긴 따뜻함 감동적



이창용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

한창 취업준비에 몰두해야 할 졸업년도. 때마침 영화열풍에 휩싸여 하루평균 대여섯편의 비디오를 보던 시기가 있었다. 신작 선정에는 한계가 있는지라, 어떤 영화를 봐야 하는지는 삶의 화두가 되다시피했고, 비디오가게에 들리게 되면, 선택의 기로 앞에서 늘 많은 고민들을 하곤 했는데 친해져버린 주인 아저씨나 옆에서 영화를 고르는 낯선이들의 혼잣말같은 영화평을 참조하는 경우가 자주 있곤 했다.

그렇게 영화를 골라주던 주변인들이 관람을 100% 적극 만류했고, 또 내가 권해서 보게 됐던 다른 사람들에게 100% 혹독한 공격(?)을 받았던 광경택 감독의 ‘닥터K’.

적어도 내 주변에선 완벽에 가까운 혹평을 받았던 영화를 두 번 세 번씩 기억날 때마다 되풀이됐던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 어렵스럽게 여전히 느껴지는건, 어떤 ‘따뜻함’ 때문이 아닐까.

이상한 능력을 가진 신경외과 레지던트가 회생불능의 환자들을 살려내고, 자신에게만 마음을 연 여성 뇌종양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 애를 쓴다는 고만고만한 이야기 속에서 보면서 눈물까지 흘렸던건,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누군가를 위하여 하고, 그 배려를 소중히 조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느껴졌던 따뜻한 시선이 마음깊이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영화의 어느 한 장면에서 느껴지는 조그만 느낌만으로도 그 영화는 충분히 가치를 갖게 된다는 소중하고도 편한 교훈까지 덩어리였다.

감독의 전작 ‘역수탕’의 끝 무렵, 여주인공이 평화롭게 묵묵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둘러보는 장면이 있다. 미소 짓는 여주인공과 더불어 나 또한 웃을 수 밖에 없었던. 따뜻하다! 따뜻하다!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정도의 시선이 다른 분위기로 배어있는 영화 ‘닥터K’.

마지막 장면에서 자신의 목숨과 환자의 목숨을 바꾸려는 의사와, 고마워하며 그 배려를 뿌리치고 떠나는 환자. 눈물까지 흘리면서 감동받았다면, 혹자는 그럴테지. 매트릭스의 네오가 죽은 트리니티를 살리는 장면을 보고 울었다는 정신나간 놈이 여기 또 있구나.

사람들의 사는 모양새가 각박해지고 내 자신의 여유없음이 서늘하게 다가오는 가을저녁, 홀로 영화한편 보다가 마음 포근해지는 소중한 경험을 다른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마음. 추천의 이유는 단 하나... 따! 따! 함!

문화단신

문예진흥기금 국고 총당 백지화

내년부터 모금제도가 폐지되는 문예진흥기금을 국고로 총당하겠다는 정부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를 백지화시켰다. 이로써 그동안 문예진흥기금이 펼쳐왔던 순수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활동이 내년부터 사실상 중단위기에 처했다.

문화관광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부가 요청한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국고 지원금 217억원이 기획예산처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문화계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순수예술의 질이 저하될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 폐지 시한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정부 부처가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안정적인 기금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3 한국실험예술제

2003한국실험예술제가 오는 30일까지 대중과의 긴밀한 소통을 의미하는 ‘Messenger’를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여러 장르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실험적인 작품 국내 70여팀, 국외 8개팀이 참여한다. 극장공연과 갤러리 전시, 거리공연 등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한젠마의 ‘관객과 함께하는 퍼포먼스’, 일본의 무용가 Masatar와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의 앙상블 공연등을 만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우의 문화 향유권을 넓히기 위한 취지에서 24일 열리는 ‘장애우 퍼포먼스 무료 워크숍’이 흥대 앞 견고 앞은 거리에서 오후 12시부터 진행된다.

문의 02-323-6812

독 자 광 고

독자광고는 함께 일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하숙집 구함, 야학교사 모집, 각 동아리·학생회 소모임 등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등 분야에 제한없이 독자들의 광고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중앙문예동아리 동국문화회입니다
우리 동국문화회는 언제나 음악 학우 분들에게 문을 열어두고 새 식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회관 3층 동국문화회 02-2260-3788
45대 동국문화회창 권오정 011-756-6031



시와 사랑의 한술밥
따뜻한 문학을 향한 날갯짓
45대 동국문화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에 열정이 있는 분이시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Opus(오퍼스)로 오세요”

매주 월, 금,六是 6시에 학림관 5층에서 연습합니다
주저말고 들려주세요

결판진 소리와 흥겨운 풍물이 있는 곳
학관 5층에서
한 판 놀아봅시다!



풍물·탈춤·마당극에 관심있는
새내기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살맛나는 세상 신명의 동아리 탈

연락처 회장 한유미 016-549-5113

수화로 사랑 나눠요

사랑과 봉사가 가득한 손짓사랑회
술 속에는 재물의 화려한 지지점이 있고
모래사장에는 유쾌한 파도소리가 있지만,
들을 수 없는 그들에게는 숲도 바다도,
소리 없는 한쪽의 그림입니다.
설령, 그들 앞에서 단 한번이라도
그들의 손과 귀가 되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당신은 사랑입니다.
마음을 전하세요,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수줍은 사랑이
그들에게는 작은 미소가 됩니다.

손짓사랑회가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특별한 사랑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
학생회관 2층 손짓사랑회로 오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부터 당신의 진정한
대학생활과 마음의 봉사가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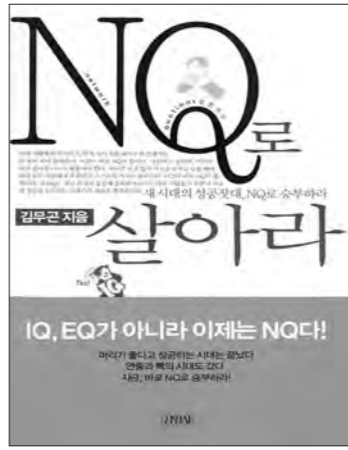
연락처 회장 안문남 016-765-1419

매체비평

도서 편

NQ로 살아가

“네트워크형 사회에 발맞춘 신개념 NQ 소개”



공존의 네트워크를 강조한 김무근 교수의 새 책 'NQ로 살아가'.

철밥통을 지켜주던 학연 지연도 이제 소용없다. IQ 서열로는 남부러울 것 없다

던 해외 박사학위 소지자들도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 IMF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에서는 연줄도, 좋은 머리도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새 시대의 성공 잭대는 무엇일까. 김무근(신문방송학) 교수는 이같은 질문 앞에 'NQ(Network Quotient)'라는 신개념 답안지를 들이밀었다. 'NQ로 살아가'는 21세기형 인간적도인 '공존지수'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바로 새로운 네트워크사회에서 함께 잘 살아가는 능력이다. 저자는 NQ가 기존 능력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바로 '서로 나누는 행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학연 지연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소외시키고, IQ를 높이기 위해 인생을 소비하는 방법으로는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사회는 이미 NQ시대의 가능성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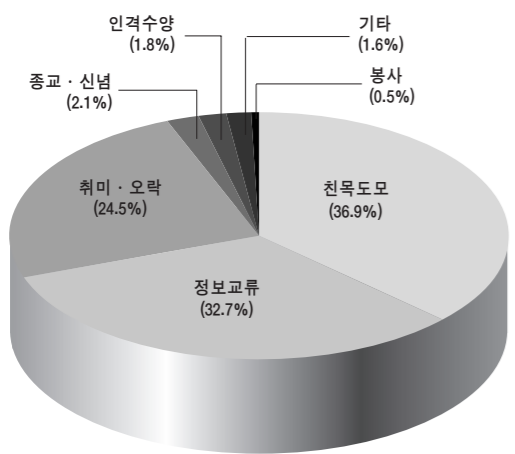
켜보았다. 붉은 악마의 월드컵 응원과 촛불시위에 이어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어낸 온라인 네트워크의 힘이 그 증거다. 이들의 활동은 소위 말하는 '연줄'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며 번듯한 경력이 없다고 왕따를 시키는 일도 없다. 새로운 인간관계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가 강조하는 NQ는 '함께 살 줄 아는 능력'이다. 자기 것을 먼저 내주고 베푸는 것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21세기형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제 저 혼자만 잘하면 되는 시대가 아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혼자만의 지식으로 되는 일이 없다. 스포츠팀의 팀워크나 매트리스 조직이나 모두 다 조화와 협력을 뿌리로 한다. 더불어 사는 지혜가 가장 필요한 시대다. 저자는 NQ의 대가들로 자신을 낮춰 세

계를 정복한 유비, 적의 마음조차 사로잡은 김춘추, 일본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물 사카모토 료마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사카모토 료마 이야기에서 료마는 어려서 부모가 포기한 대책 없는 아이였다. 그러나 바보스러운 성격을 가진 료마는 다른 사람의 능력을 먼저 인정해주고 자신의 공을 타인에게 돌렸다. 몰심양면으로 다른 사람들을 후원한 그는 결국 다른 이들과 함께 자신이 이루려고 했던 일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가 말하는 공존의 네트워크란 학연, 지연, 학연 등 이른바 인맥을 뜻하는 게 아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대등한 입장으로 정보와 자원을 자유롭게 교환하면서 서로 유연하게 결합된 형태를 의미한다. 이른바 '백'이나 '혈연' 등으로 결합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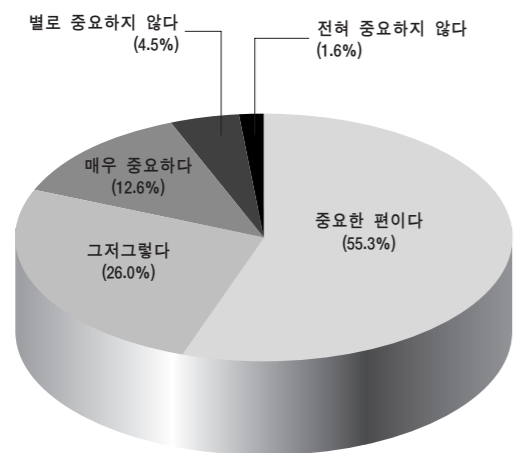
연줄형이 아니라 네트워크형 사회로 바뀌어야만 모두의 행복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네트워크는 '줄'로 연결되지 않는다. 새로운 네트워크에 들어갔다고 영원한 '백'이 생기지 않는다. 어디에서든 스스로 노력해서, 남과 함께하는 방법을 배워야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저자는 "아무리 조건없이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배려하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스스로의 가치도 올라가게 된다"며 "연줄은 그것이 큰 힘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며, 그것이 바로 NQ의 힘"이라고 재차 강조한다. 사회진출을 앞 둔 대학생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장 하 용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교수

대학가도 온라인 커뮤니티 전성시대

▶온라인 상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주된 목적 (37개까지 중복응답)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사회적 관계가 본인에게 중요한 정도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문화 변화에 막강한 영향력 행사 대학 사회 내에서도 보편적 문화 코드로 자리잡아

인터넷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오프라인 못지 않은 사회 활동이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인터넷은 매체로서 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사회활동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낳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이다.

거대한 여론 창출구

온라인 커뮤니티는 급진적으로 발전하면서 정치·사회·문화 변화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초기 온라인 커뮤니티는 오프라인과 연계한 홈페이지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점차 독자적인 커뮤니티가 늘었고, 나아가 오프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유도하는 수준에 이르른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가입·탈퇴가 자유롭고 직업이나 나이 등의 서열구분이 없어 회원 확보가 쉽다.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 비해 다양한 취향에 부합하는 커뮤니티가 무궁무진해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구성원이 공통의 관심사를 매개로 해 공감대 형성이 용이하다는 점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커다란 장점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조직화된 구매자의 모임'이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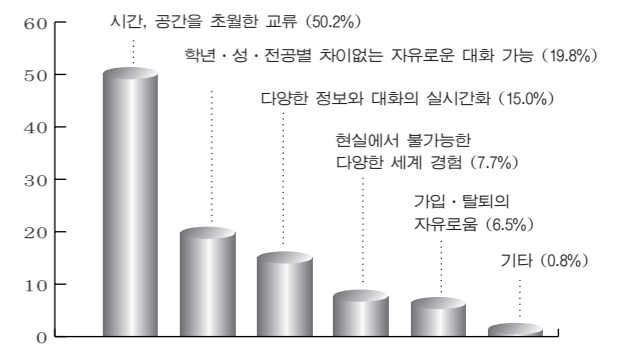
점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벌이는 기업들도 등장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은 대학 사회 내에서도 보편적인 문화 코드로 자리잡았다. 대학에 근간을 둔 온라인 커뮤니티는 친목도모부터 정보교환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된다. 특히 단과대·학과별 커뮤니티는 학부제의 문제점 중 하나인 소속감과 선후배간의 교류 문제를 해소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이와 관련해 본교 학생상담센터(소장=권동희)가 본교 학생 286명에게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연구'라는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눈길을 끈다. 이에 따르면 학생의 92.8%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으며 1인당 가입한 커뮤니티 수는 2.3개로 오프라인의 두 배에 가깝다. 또한 구성원간의 교류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57.7%가 '온라인에서만 교류한다'고 응답했으며 게시판 및 자료실(44%), 비정기 채팅(8.2%), 정기채팅

(4.5%) 등을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밝혀 다소 단편적인 관계 성향을 읽을 수 있다. 활동 이유에 대해서는 학년 별 차이를 보였다. 2·3학년은 '나의 관심과 부합되는 커뮤니티가 있어서', 1학년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서', 3·4학년과 유학생은 '시·공간을 초월해 구성원을 만날 수 있어서'라는 내용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입자의 성숙한 윤리의식(47.6%)과 교내 사이버 공간의 확보(32.4%)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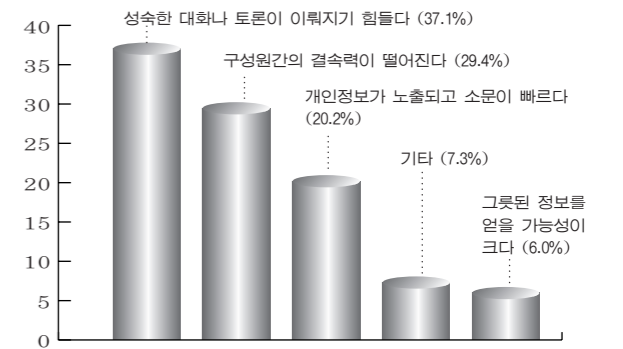
문제점 개선해야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보완해 나가야 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용자들의 윤리의식 미성숙과 잘못된 정보 유통 등의 문제는 개선이 시급하다. 이는 그릇된 방향의 여론형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적용 가능한 별도의 법규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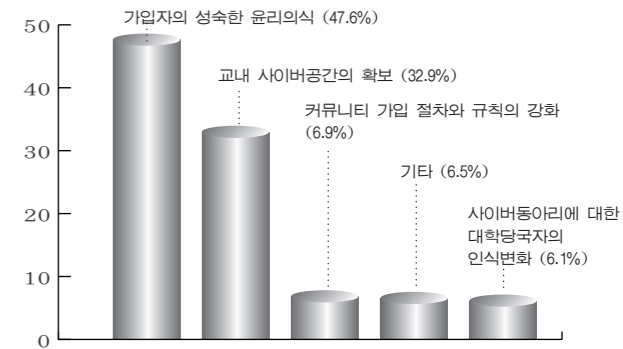
▶온라인 커뮤니티의 장점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장 큰 문제점



▶활성화를 위해 개선할 점



본교 학생자치 커뮤니티 개설

“우리만의 ‘진짜’ 소통공간이 생겼어요”

내일(23일)부터 운영 시작 ... 올바른 방향의 학내여론 주도해 나가길

최근 불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열풍을 타고 지난 18일부터 본교 홈페이지에서도 'e-club'이라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커뮤니티 'www.dglove.net'도 오픈을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내일(23일) 1차 오픈을 해 시범서비스를 선보인 후 다음달 1일 정식 오픈을 하는 이 커뮤니티는 운영진이 일반 학생들로 이루어진다.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기자단, 홈페이지 운영단 등 10~15명의 운영진은 신청자들로 구성할 예정이다. 홈페이지의 세부 콘텐츠는 요즘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장점을 응용하였다. 한 예로, '만해광장'이라는 코너 중 사진게시판에서는 디카 사진을 올리거나 그에 대한 댓글·추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루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사진은 메인으로 정하여 더 많은 네티즌에게 선보인다. 또한 '좋은 수업 만들기'라는 코너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강의 평가를 통한 수업 정보를 공유한다. 이 외에도 학교주변 맛집 소개, 교재·리포트 자료 등의 공유 공간 등 학내·외에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나눌 수 있다. 타대학에서는 이미 이러한 커뮤니티가 개설되어 활발하게 운영중이다.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이인(www.ewhaiin.com)'은 하루 최대 동시접속자가 4천 명을 넘을 정도로 학생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커뮤니티 내 개인 공간이 있고, 여대생들이 관심이 많은 페미니즘 등에 대한 논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연세대학교 'feelyon(www.feelyon.com)'은 '100인 발의

제'와 '전자총투표'라는 콘텐츠로써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 전자민주주의 실현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온라인에서 100명의 동의를 받은 안건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전에 상정되어 논의되고, 온라인 총투표를 통해 집계된 결과는 학생사단 의사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만큼 학내 주도적인 여론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본교의 커뮤니티도 1만2천 동국인들이 학교와 총학생회 등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운영부터 참여까지 학생들의 자발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활성화를 위해 동국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 mh705@dongguk.edu



메아리

빛깔풀기에 앞서

▲태풍 '매미'가 남긴 피해는 친숙한 이름이 무색할 만큼 매우 심각했다. 지난 15일 이로 인한 피해 현황을 관계 장관 8 명에게 보고 받은 국회 재해대책위원회에서는 '인재론'이 또다시 재기했다. 이는 정부의 예방책 미흡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 실적에만 열을 올린 북구공사가 인명·재산 피해의 정도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난 16일

일본 대중문화 4차 개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영화, 가요, 게임을 포함한 일본 대중문화가 전면 개방됨에 따라, '18세 이상 관람가' '제한 상영가' 등급의 일본 극장용 영화와 일본어 가요 음반, 게임기용 비디오게임을 무차별적으로 접할 수 있게된 셈이다. 다행히도 방송과 극장용 애니메이션 분야는 국민 정서와 관련 산업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오는 12월 말 까지 개방 폭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지난 6월 열린 한·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후속조치로 일본 대중문화 추가개방 방안을 검토한 것에 따른 결과물이다. 그동안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민족적 정서 침해, 저질문화 범람 등의 우려로 더디게 진행돼왔다. 하지만 일본대중문화가 이미 우리나라 대중문화 변화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이 사실이며, 음반·게임 시장 호황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시

각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개방에 문화 충격이 작았다"는 정부의 근거는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까. 합법적 통로를 통해 접한 일본 대중문화는 국제영화제 수상작 등 '고상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게다가 우리나라 정서 환경에 맞는 폭력· 선정성에 대한 기준과 일본 거대자본으로부터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을 보호하는 정책도 미비하지

않은가. 이번 4차 개방안이 한·일 관계를 진전시키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면 그를 맞이할 준비도 부지런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 대중문화라는 엄청난 '태풍'이 가진 문화적·정서적 힘을 무시해 나타난 피해를 '뒷북'으로 수습하기엔 너무 위험하니 말이다. 김하나 문화부장 selllyone@dongguk.edu

새 소식

로터스 현악 4중주단 초청연주회

'로터스 현악 4중주단 초청연주회'가 오는 25일 오후 4시 30분에 본관 중강당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 공연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 등이 연주된다. 또한 2부 공연에서는 첼리스트 홍지영, 오유진 씨가 '두 대의 첼로를 위한 협주곡'을 연주한다. 이 외에도 우리에게 친숙한 가요 '아침이슬', '사랑으로'를 현악기로 연주해 색다른 느낌을 전달할 것이다.

나는야 '지금사랑'이 더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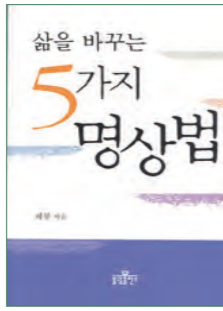
이 책은 시인인 저자가 길에서 혹은 책 속에서 만나고 헤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을 모은 수필집이다. '희망을 나누는 좋은 생각' '정희성의 파랑새 편지'라는 부제로 묶인 총 79편의 글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전박한 물신의 시대'인 요즘 세태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를 회복해 나가기 위해 이 시대 사랑법으로 휴, 정, 선을 제시한다. 특히 제주도 풍광을 담은 사진작가 김영갑 씨의 사진과 조화를 이뤄 보는 재미를 더했다.

정희성 저/ 서지원/ 9천500원.

제3회 열음 공연

본교 행정학과 노래패 '열음'이 다음달 4일 오후 6시 학생회관 5층 소극장에서 세 번째 공연을 갖는다. 전체 1·2부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며 1부에서는 어두운 모습의 삶을 2부에서는 밝은 분위기의 희망을 노래한다. '우리 모두 함께'라는 주제의 이번 공연은 말 그대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새물 △한결같이 △그날이 오면 등 우리에게 친숙한 총 14곡의 노래로 구성된다. 더불어 퍼포먼스와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삶을 바꾸는 5가지 명상법



명상수련을 지도해온 혜봉스님이 명상을 통해 깨달았던 마음의 원리와 사람들과 주고 받았던 이야기들을 묶은 책이다. 저자는 마음에 따라 자기 삶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고, 삶의 귀천이 정해진다는 것을 명상을 통해 깨달았다고 밝힌다. 특히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따라해 볼 수 있는 명상법과 그에 대한 효과를 이야기함으로써 명상에 관심이 적은 사람까지도 흥미를 갖게 한다.

혜봉 저/ 불광출판부/ 9천원.

제15회 피어리스 던 정기공연

본교 락 동아리 '피어리스 던'이 오는 30일 오후 6시부터 학림관 소강당에서 제15회 정기공연을 갖는다. 이번 행사는 △8th day △Zombies △fearless dawn 3개 밴드가 차례로 공연한다. '소실점(vanishing point)'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각기 다른 모습과 위치, 그리고 이상 등을 가진 사람들이 오직 음악이라는 한 점에 집중해 하나로 어우러지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한국미술의 역사



선사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회화, 조각, 공예, 건축 분야 등 한국 미술분야를 총망라한 유일의 정통 개설서이다. 지난 93년에 출간된 '신판 한국미술사'를 개정한 책으로 가야·발해 미술에 대한 내용보강 및 새로 발견된 작품사료 및 연구업적을 반영했다. 전권에 비해 한글화했고 평이한 문장으로 수정해, 전문문화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김원용·안휘준 저/ 시공사/ 4만8천원.

퍼즐-동대신문이 보인다

10x10 grid with numbers 1-12 and some cells shaded.

- 11. 취업시 서류전형과 필기시험에 통과한 후 마지막으로 치르는 시험.
12. 본교 캠퍼스 '차 없는 날'은 매월 마지막 주 OO O일. ~요일.

새로열쇠

- 2.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을 뜻함. 이번호 사회면에서 이것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4. 본교 홈페이지가 개편됨에 따라 익명제로 운영되던 '나의 주장'을 로그인 대상자에 한해 실명제로 운영하는데 이 방식을 가리키는 말.
5. 인터넷 상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매개로 형성된 소통 공간을 온라인 OOOO라 부름.
6. 쪽에서 나온 푸른 물감이 쪽빛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날 때 쓰는 사자성어.
10. 국가적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하여 온 국민이 기념하는 날.

가로열쇠

- 1. 법령의 공포, 행정기관의 준발, 최근 이 기관 장에 대한 해임안 논란이 일고 있음.
3. 가슴 부분.
6. 19~25세의 젊은 층이 취업을 하지 못한 것을 가리키는 말.
7. 그리스 신화에서 학예를 맡고 있는 여신의 이름.
8. 영국을 비롯한 미국·캐나다 등의 공용어로 취업을 위해 필수로 취급되는 언어.
9. 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가 지은 책 제목. 이번호 학술면에서 다룸.

'퍼즐-동대신문이 보인다'는 발행일자 동대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정답을 적어 분사 송무부에 제출해 주십시오. 정답자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번 호 정답과 당첨자는 10월 6일자 신문에 게재됩니다. 편집자

빛으로 그린 세상



고인은 말이 없고 유족은 말을 잃었습니다. 설자리를 잃게 될지 모르는 현실이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것이었나 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지난 18일 고 이경해(전 한농연 회장) 씨 빈소에서

김진성 사진부장 yeam@dongguk.edu

동아리·소모임 탐방 - 동굴탐험 연구회 'DUCC'

천연의 어둠 밝히는 탐험가를 꿈꾸다

방학 기간 이용해 국내 외 유명 동굴 활발하게 답사

꺼지지 않는 도시의 가로등과 밤이면 더욱 빛을 발하는 네온사인. 빛의 발명으로 '어둠'이 사라진 오늘날, 아직도 자연 그대로의 어둠을 간직한 '동굴'을 찾는 이들이 있다. DUCC(동굴탐험연구회) 회원들이 그들이다. DUCC는 학생회관이 아닌 구 중앙도서관 지하에 자리 잡아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35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진 동아리이다. 1970년 이래로 전국에 있는 동굴은 물론 해외원정까지 다니며 많은 활동을 해 온 DUCC는 지난 70년부터 93년까지 20여 년 동안 삼척에 있는 '환성굴'을 개방하지 않은 8.4km까지 측량했다는 자랑스러운 업적을 가지고 있다. DUCC는 평상시에 2주에 한번 학내에서 실제 탐험에 대비한 빛줄훈련의 일종인 SRT(single roof traing)훈련을 하고, 정기적으로 동굴이나 산으로 자유탐험을 나간



미개방된 동굴을 탐사중인 DUCC회원들.

다. 이러한 훈련을 토대로 방학중에는 장기간 동안 실제 탐험을 한다. 지난 겨울 방학에는 한달여간 뉴질랜드 전지역을 돌며 동굴 외부답사를 했고 여름방학에는 강원도 정선과 경상북도 문경 일대의 동굴을 탐험했다. 한편 구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9월 말까지 임시거처로 동아리실을 이전해야 한다는 점은 요즘 DUCC 회원들의 가장 큰 고민이다.

이에 대해 DUCC 회장 김동우(경행2)군은 "공사 후 새로 들어갈 거처가 학교측과 아직 합의되지 않아 불안하다"며 "무엇보다 동아리 창설 이후 계속 지켜온 이 공간을 떠난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이들은 올 겨울 말레이시아 동굴 탐험 등 활발한 활동계획 준비로 분주하다. "서로의 생명을 잡고 있다는 점은 남다른 유대감을 준다"는 천진혜(영문3)회원의 말에서 DUCC 회원들만의 독특한 유대감이 느껴졌다. 어느 한줄기 빛조차 차단된 원시 그대로의 공간인 동굴, 그곳에서 오직 탐험가의 열정으로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빛을 밝혀가며 한발 한발 내딛는 DUCC. 그들의 빛나는 '미래'를 향한 탐험과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기대해 본다. <민> mh705@dongguk.edu